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설교의 본질은 ‘존재의 변화’”

아트설교연구원, 네 번째 설교 시리즈 《설교트렌드 2027》 출간

아트설교연구원이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저서인 《설교트렌드 2027: 변화시키는 설교》를 출간하고, 7월 30일 서울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필 의도와 설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개했다.

이번 책은 《설교트렌드 2025》, 《살리는 설교》, 《설교트렌드 2026》에 이은 설교 시리즈의 네 번째 저작으로, ‘변화시키는 설교’를 주제로 내걸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청중의 ‘존재론적 변화’에 두었다.

아울러 설교자의 변화에서 출발해 청중의 변화와 교회의 회복,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설교의 본질을 신학적·목회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AI 시대 한국교회 강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필에는 김도인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권오국 목사(이리신광교회 담임), 이재영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부대표), 박혜정 선교사(GMP 개척선교회오프온

북스 편집장), 김광균 선교사(베트남 은퇴 선교사), 석근대 목사(대구동성교회 위임), 김용대 목사(청치기교회 담임), 허진곤 목사(무주금평교회 담임), 김인해 목사(목포호산나교회 위임·사랑의언어독서연구소 소장), 이지철 목사(Next세대 Ministry 연구원·웹사이트 아카데미 강사), 김선우 목사(주성성결교회 담임), 최승국 목사(아트글쓰기운동본부 서울지역)가 참여했다.

집필진은 이날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며 “AI 시대일수록 설교자는 기술보다 말씀 앞에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대 설교의 가장 큰 위기를 ‘정보 전달 중심의 설교’에서 찾았다. 설교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중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영성 형성과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짧은 시간 안에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설교자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됐다. AI는 자료 조사와 논리 구성 등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쁨



《설교트렌드 2027: 변화시키는 설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집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혜정 선교사, 이재영 목사, 이지철 목사, 최승국 목사, 김선우 목사, (앞줄 왼쪽부터) 김도인 목사, 석근대 목사, 김광균 장로 ©김진영 기자

부음, 설교자의 삶에서 비롯되는 영적 권위는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설교가 ‘정보 전달’이 아닌 존재의 전향’을 목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뇌과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의 근원으로 조명한다. 제3장은 청중의 영적 갈망과 변화의 필요성을 다루며, 제4장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원론을 극복하는 세계관의 변화를 제안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지성과 영성, 인격을 겸비한 설교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담회에서는 각 집필자가 자신이 집필한 내용과 책에 담은 메시지를 소개했다. 먼저 김도인 목사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교자는 ‘나는 누구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 책이 설교와 변화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목사는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필자들이 먼저 변화했다”며 “진정한 변화는 존재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설교자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며, 변화의 주체는 결국 성령”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선교사는 청중의 입장에서 집필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하며 “성도들도 드라마틱하지 않을 뿐이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그 성장을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설교가 청중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지성과 영성, 인격이 함께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목사는 뇌과학을 접목한 내용을 소개하며 “사람의 변화는 회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화개와 함께 소망의 언어가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허진곤 목사는 “오늘날은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 집단지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며 “이번 책에는 여러 집필자의 삶과 목회 경험을 담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지철 목사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전달될 때 변화가 일어

난다”며 “설교는 상처를 덮는 반창고가 아니라 근본을 치료하는 수술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장로는 평신도의 시각에서 집필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교가 세상과 괴리되지 않고 성도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진솔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석근대 목사는 “교인을 변화시키려는 욕심보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며 “변화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국 목사는 “이 책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근육통’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근육은 사용할수록 성장하듯 영성도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씨름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교가 단순한 설명이나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때 교회와 성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설교자는 AI가 제공하는 편의성에 의존하기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이 변화된 후 강단에 서야 하며, 그럴 때 청중의 삶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스틸 대사, 부임 첫날 영락교회 방문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출석... 방명록엔 “기도로 시작해 기뻐”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를 찾아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 교회를 다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교회에 도착해 본당에서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는 “(스틸 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하는 첫 날,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 교회를 찾으셨다고 한다”며 스틸 대사가 기도 후 교회에 마련된 한경직목사기념관도 둘러봤다고 한다.

스틸 대사는 교회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여기 있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I'm very happy to start my new journey in Korea with a prayer. What a blessed person I'm here)”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영락교회 담임인 김운성 목사는 다른 일정으로 직접 스틸 대사를 만나지 못해, 대신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 목사는 이 메시지에서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전했다.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 故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틸 대사를 두고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부모를 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오클라호마주 수퍼바이저와 캘리포니아 주 조세청평교 위원 등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성공하는 등 미국 정치권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성명을 발표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한국계 여성으로서 미 연방 하원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한파’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스틸 대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신앙인으로, 정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

고 고백해 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며 정치 현장에서도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 정책과 공공 영역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입장을 밝혀, 신앙과 공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는 삶을 강조해 왔다.

김진영 기자

헬버트 박사 77주기, 121년 전 ‘워싱턴 비밀 특사’ 조명

‘한 국민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호버 헬버트(1863-1949) 박사(사진)의 순국 77주기를 맞아 그의 외교적 결기와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헬버트박사가기념사업회는 8월 27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백주년기념교회 선교회기념관에서 ‘제77주기 헬버트 박사 추모대회를 열린다고 7월 31일 전했다.

특히 올해 추모대회는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강행을 막기 위해 고종황제의 비밀 특사로 미국 워싱턴에 파견되었던 헬버트 박사의 ‘워싱턴 의거’를 집중 조명한다. 사업회는 이날 1905년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고종황제 대미특사

헬버트의 워싱턴 의거’ 특징을 발간하며, 당시 그가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고자 벌인 긴박했던 외교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북콘서트 열려 >> 3면

“AI 에이전트 시대, 생존의 핵심은 인간력” >> 7면

HASHAV, 일곱 번째 싱글 ‘주를 인정하는 것’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신앙·신학회복·영적생명운동 등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 세미나 개최… 성두현 목사 대표회장 연임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가 제15회 정기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확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회복을 위한 사역 방향을 재확인했다.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부천 소재 우리비전교회(담임 성두현 목사)에서 제15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14회기에 이어 성두현 목사가 제15회기 대표회장으로 연임됐다. 성두현 목사는 임원진과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회기를 준비해 왔다고 밝히며, 개혁주의생명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서 생명 회복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심으로 사역 방향 제시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가 강조하는 핵심 사역 방향은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회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으로 구성된다.

신앙운동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운동이다. 신학회복운동은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신학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개운동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영적생명운동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하나님나라운동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회와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눔운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실천을 강조한다.

기도성령운동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역이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운동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7대 실천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삼고 있다.

◆ “개혁주의생명신학 통해 제2의 물결 일으키는 동력 얻어”

제15회기 대표회장으로 연임한 성두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참여를 통해 협의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

다고 밝혔다.

성 목사는 “우리 임원들이 약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며 “역지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7대 실천운동과 영혼을 살리는 성령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오늘 약 90여 명이 참석하게 됐다”며 “개혁주의생명을 지나 제2의 물결을 일으키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전 세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제2의 종교개혁운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운동임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 역동하도록 실천하고, 백석총회 전국 노회와 목회자들에게 관련 도서 보급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제15회기 임원 구성 및 공로패 전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15회기 임원 소개와 신규 임원 교체식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실무임원을 발표했으며, 사무총장 백낙천 목사와 회계 최성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는 대표로 사무총장 백낙천 목사가 수여받았다.

제15회기 실무임원은 대표회장 성두현 목사를 비롯해 상임회장 정원석 목사, 실무회장 조래자 이옥화 목사, 사무총장 이해우 목사, 서기 성은영 목사, 회의록서기 박덕수 목사, 회계 윤숙희 목사, 부서기 김성관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동수 목사, 부회계 김미순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축사를 전한 자문위원 성종현 교수는 백석교단의 성장 배경으로 자생교단이라는 점과 일치와 연합을 강조해 온 점, 그리고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을 꼽았다.

성 교수는 “백석교단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를 위해 어떻게 더 힘써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지도위원 박효진 목사는 “성령을 받아 목회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지도위원 이명옥 목사는 “협의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제일교회 강기선 목사는 “말려주신 사명을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가 최근 경기도 부천 우리비전교회에서 제15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확산과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생명 회복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제15회기 대표회장으로 연임한 성두현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정현모 목사가 세미나에서 ‘노인복지의 실천방법(나눔운동)’을 주제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나눔운동과 생명 중심의 복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장지동 기자

잘 감당해 오늘 정기총회가 평생 잊지 못할 총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축하했다.

실무회장 조래자 목사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가 교단 안에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귀한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무회장 이옥화 목사는 “백석교단은 하나님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무총장 백낙천 목사(오른쪽)에게 대표회장 성두현 목사(왼쪽)가 공로패를 수여했다. ©장지동 기자



백석총회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성령을 받으라’(요한복음 20:22)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불들어 주시는 교단”이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격려했다.

경기도북부장 강관중 목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적인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역을 축하했고,

충북본부장 김만열 목사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개혁주의생명신학을 통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GPM 대표 빅토리아최 목사는 협의회가 예수 생명과 성령으로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회원들이 하나 되어 전 세계적인 생명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격려했다.

◆ “노인복지의 생명을 우선하는 나눔운동”

총회 이후 진행된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세미나에서는 ‘노인복지의 실천방법(나눔운동)’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지도위원 정현모 목사(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은혜교회 담임)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의미와 나눔운동의 실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목사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을 반성하며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운동”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신앙 실천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이 있다”며 “교회는 영생기관이며 사후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기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공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르신”이라며 “백석교단의 실제적인 운동과 7가지 실천운동을 통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신임회의록서기 박덕수 목사의 폐회기도와 정책위원장 조승현 목사의 식사기도로 마무리됐다.

◆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감당해야”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는 백석총회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요 20:22)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승수 목사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었다”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며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 교인들의 영적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을 살리며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세워가는 협의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개혁주의생명신학목회자협의회는 이번 제15회 정기총회를 통해 개혁주의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서 생명회복과 성령운동 확산을 위한 사역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장지동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한국동서발전주

“숫자 늘리기보다 알곡과 본질 회복 급선무”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온라인 북콘서트 열려

(사)꿈이있는미래와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공동 주최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온라인 북콘서트가 최근 서울 동작구 소재 CTS홀에서 최근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경훈 목사(사)꿈이있는미래 대표)와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제자로 나섰다. 두 발제자는 급격한 사회작기술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객관적 데이터와 본질적 목회 방향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경훈 목사(오른쪽부터) 김수환 교수, 지용근 대표, 주경훈 목사. ©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경훈 목사(오른쪽부터) 김수환 교수, 지용근 대표, 주경훈 목사. ©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경훈 목사(오른쪽부터) 김수환 교수, 지용근 대표, 주경훈 목사. ©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특징과 교회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의 81.8%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삶 전반이 파편화·분리화되고 있다”며 “AI 시대 가운데 분리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경 중심적인 통합적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 대상 청소년의 41%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아이들은 예배나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 교회 시스템 속에서 의미와 관계,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휘발성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교육”이라며, ▲가정-교회-학교의 연결 ▲부모를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교사를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닌 영적 부모로 세우기 ▲경험 중심의 신앙 교육 ▲학생을 사



(오른쪽부터) 김수환 교수, 지용근 대표, 주경훈 목사. ©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역의 주체로 세우기 ▲스쿨 처치(학교 선교) 활성화 ▲AI가 대신할 수 없는 목회(공감·눈물·제자도) 강화 ▲프로그램보다 제자를 세우는 목회 등의 대안을 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지용근 대표(목회데이터연구소)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전국 중고등학생, 이탈 청소년, 학부모, 교사, 사역자 등 7개 집단 총 3,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지 대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의 실태와 기성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지 대표는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중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별, 성적, 가정환경 등 모든 요인을 통틀어 가장 신앙이 좋은 집단은 ‘학교 기도모임(스쿨 처치)’에 참석



주경훈 목사. ©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KCMC

하는 학생들이었다”며 주중 삶의 현장 사역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 1위는 친구와 사역자이며, 불만족하는 이유 1위 역시 사역자와 설교(합산 34% 이상)였다”며 “교회 학교 사역의 결정적인 키는 부모 이전에 현장 사역자(교역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신

앙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로는 ‘수련회’와 ‘찬양’을 꼽았다.

또한 청소년의 41%가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반면, 이를 인지하는 교사나 부모, 사역자의 비율은 18% 안팎에 그쳐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지 대표는 “이탈 청소년의 67%는 떠날 당시 교사나 사역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사역자와 부모는 이탈 이유를 ‘학업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이탈 청소년 본인들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예배와 설교’를 1순위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대안으로 “과거와 달리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학생들에게 예배 순서 담당, 수련회 기획 등 주도권을 돌려주는 ‘학생 주도형 예배(마이크로 워십)’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교회는 교사 대 확보보다 부모 교육(세계관, 대화법, 기도법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교사와 부모 간 소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한장총-민족복음화운동본부, 2027 대성회 위해 업무협약

성공 개최 위한 협력 다짐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7월 31일 한장총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77민족복음화대회 50주년을 맞는 2027년의 대성회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며 해외와 지역성 회, 목회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오른쪽)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장총

자 화개성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핵심운동인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익배 목사의 사회로 총재

이태희 목사가 업무협약 취지를 설명한데 이어 한 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양기관 내빈소개와 총강사단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 후 업무협약 서명명과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이선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장총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큰 일에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총재는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영적으로 세우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약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총재 이태희 목사와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를 비롯해 강사단장 엄신형

목사, 해외대표 김호승 목사, 본부장 이기도 목사, 연구원장 김병호 목사, 홍보담당

김호승 목사가 참석했으며, 한 장총에서 는 대표회장 이선 목사와 총무 조세영 목

사, 사무총장 이석훈 목사가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살롬인더월드·주다산SMC,

‘한반도 중·고·청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 개최

400여 명 청소년·청년 참가...

“복음통일 비전 품은
다음세대 리더 양성”

살롬인더월드(대표 권순웅 목사)와 주다산SMC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2026 한반도 중·고·청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

‘오늘날의 다윗’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중고등학생과 청년 4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복음통일과 다음세대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순웅 목사(살롬인더월드 대표, 주다산교회 담임)는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시대를 깨우는 다음세대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며 “강사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통일을 꿈꾸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는 권 목사를 비롯해 최창수 목사, 하광민 교수, 윤설미 이사장, 노휘성 소장, 장한이 가수, 정유나 자매, 정은지 방송인 등이 강사로 참여해 말씀과 간증, 특강 등을 진행했다.

캠프는 ‘서프라이즈 5S(Surprise 5S)’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Spirit’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와 기도회로 진행됐으며, ‘Super’



2026 한반도 중·고·청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살롬인더월드



권순웅 목사가 캠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살롬인더월드

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강사진의 메시지를 통해 신앙과 리더십을 세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 ‘Scale’에서는 통일 비전을 넘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글로벌 리더십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Smart’는 참가자들이 캠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속소와 식사,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hare’에서는 또래들과 교제하며 신앙과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캠프를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다는 소감



2026 한반도 중·고·청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살롬인더월드

을 전했다.

김중환 청년은 “탈북민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 신앙과 자유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쉽게 주어진 물질과 자만심으로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했다”고 했다.

중등부 신주성 학생은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됐다”며 “특히 노휘성 소장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애경이 만드는 세상의 색깔은 블루

애경은 푸른색의 세상을 꿈꿉니다

지속가능한 푸른 내일을 위해
애경은 탄소저감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연세대 BK21 연구팀, 고린도전서 ‘엑트로마’ 의미 새롭게 조명

임은영 교수, ‘엑트로마’를 유산·사산 경험과 연결해 해석



연구가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4단계 BK21 ‘초연결 시대의 미래 종교 교육연구팀’(팀장 임성욱 교수)은 지난 14일 미국 버몬트주 미들버리대학(Middlebury College) 신약학 교수인 임은영 박사를 초청해 “한 조산아: 재생산 상실과 여성의 의례적 경험을 통해 다시 읽는 고린도전서(One Untimely Born: Reading 1 Corinthians through Reproductive Loss and Women’s Ritual Experience)”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 속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삶을 연구해 온 임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등장하는 그리스어 ‘엑트로마(ἔκτρομα)’를 중심으로, 고대 물질문화와 여성들의 실제 삶을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헌 연구를 넘어 고고학과 물질문화 연구를 접목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종교와 신앙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

를 가졌는지를 조명했다.

◆‘엑트로마’를 둘러싼 새로운 성서 해석… 여성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다

임 교수는 그동안 학계에서 ‘엑트로마’가 바울 자신의 부족함과 겸손을 표현하는 수사적 장치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이 표현을 들은 고린도의 여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 연구와 다른 해석의 출발점을 제시했다. ‘엑트로마’는 유산되거나 사산된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됐으며, 당시 여성들에게는 단순한 비유 이상의 현실적 경험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 교수는 성서와 고대 문헌뿐 아니라 부적, 저주 서판, 매장 유적 등 다양한 고고학 자료와 물질문화 연구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로마 시대 고린도가 아프로디테를 비롯해 데메테르와 코레, 에일레이타이아, 이시스 등 임신과 출산, 영아 보호를 담당하는 여신 숭배가 집중된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에는 자궁을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믿음에 기반한 이른바 ‘자궁 마법(uterine magic)’이 여성들의 일상적인 재생산 돌봄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데메테르-코레 신전에서 발견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4단계 BK21 ‘초연결 시대의 미래 종교 교육연구팀’이 지난 14일 미국 미들버리대학 신약학 교수 임은영 박사를 초청해 ‘한 조산아: 재생산 상실과 여성의 의례적 경험을 통해 다시 읽는 고린도전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신원

저주 서판과 자궁 형태의 보석 부적은 고린도 여성들이 경험했던 임신과 유산, 불임 등의 문제가 종교적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고고학 자료가 보여주는 고린도 여성들의 삶과 높은 주산기 사망률

강연에서는 고고학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됐다.

임 교수는 아테네 아고라 본 웰(Agora Bone Well)에서 출토된 태아와 영아 유해 459구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영아 살해의 흔적이 아니라 자연사와 높은 주산기 사망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유적에서는 산과가 에일레이타이아에게 바친 봉헌물과 부장용 썰매, 평화 의식과 관련된 개의 유골 등이 함께 발견됐다. 임 교수는 이러한 자료들이 고대 여성들이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이후 독자적인 애도와 평화 의례를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고고학자 셰리 폭스(Sherry Fox)가 분석한 로마 시대 고린도 유골 94구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린도는 인근 도시인 파포스보다 영아 사망률이 더 높았으며, 주민들의 평균 신장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차아에서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에나멜 형성 부전이 더 많이 확인됐다.

여기에 브루스 윈터(Bruce Winter)의 연구도 함께 제시됐다. 그는 고린도가 40

년대 두 차례 기근을 겪었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51년에도 다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식량 부족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도 여성들의 종교적 실천과 연결 가능성 제기

임 교수는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세기 고린도는 반복되는 기근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사회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린도 여성들은 ‘엑트로마’라는 단어를 단순한 비유나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언급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 역시 기존처럼 신비종교의 영향으로만 해석하기보다, 유산과 사산으로 자녀를 잃은 여성들이 아이들의 평화와 구원을 바라는 종교적 실천과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텍스트 중심 해석 넘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삶 조명해야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인 바울이 여성 경험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가”, “바울이 사용한 어머니와 아이의 이미지는 여성을 차별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서사적 전략인지” 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저자의 목소리만을 중심으로 성서를 읽는 기존 해석이 가

진 한계를 인정하면서, 바울을 무조건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만 규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설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바울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살아간 한 인간이었다는 역사적 조건과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보다 균형 잡힌 성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강연을 기획한 임성욱 교수는 “성경 속 단 하나의 단어에 담긴 여성들의 삶과 고통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강연은 연구팀이 지향하는 ‘돌봄과 정의에 기반한 해석 공동체’의 방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서학을 비롯해 고고학과 물질문화 연구, 여성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접근은 앞으로 신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은영 교수는 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삶을 연구해 왔으며, 대표 저서로는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고린도전서·사도바복속 속 유아 이미지』(Entering God’s Kingdom (Not) Like a Little Child: Images of the Child in Matthew, 1 Corinthians, and Thomas, 2021)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읽는 고린도전서와 인종 폭력」(Reading First Corinthians Through Racialized Violence in the Korean Diaspora) 등이 있다. 장지동 기자

故 하용조 목사 15주기… “그의 선교 비전, 온누리 공동체가 이어가야”

용인 Acts29 비전빌리지서 추모예배 드려

故 하용조 목사 15주기 추모예배가 31일 오전 경기도 용인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으며 이인용 장로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참석자들은 고인의 추모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강부호 목사가 ‘소원과 이루심을 주시는 하나님’(빌립보서 2:12-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빌립보서 2장 12-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소원을 주셔서 다음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종보,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든 일처럼, 하나님은 현장의 필요와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용조 목사님의 삶과 사역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에는 교회와 선교를 향한 진정성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도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모습은 그가 선교와 교회를 단순한 목회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선교의 기회로 보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목사님은 성령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이었다. 교역자를 세울 때 선교와 성령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고,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이 탁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마음의 발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과 비전을 심어 주셨고, 그 비전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목회 철학으로 구체화됐다”고 했다.



故 하용조 목사 15주기 추모예배가 경기도 용인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드려졌다.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가 ‘소원과 이루심을 주시는 하나님’(빌립보서 2:12-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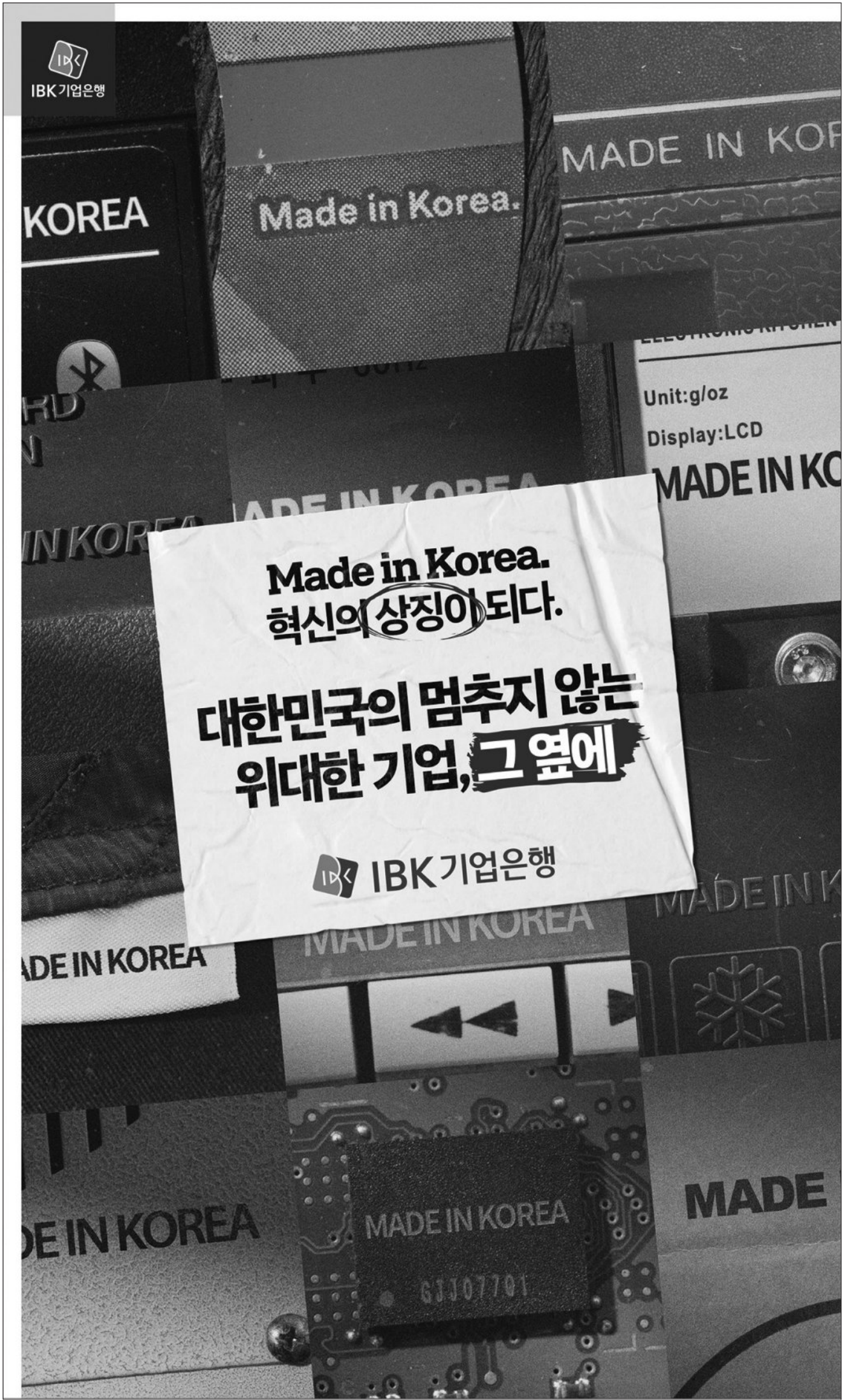
故 하용조 목사의 가족이자 아들인 하성석 부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온누리교회

훈 목사와 사역팀에게도 감사드린다. 아버지께서도 오늘의 공동체를 보신다면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분이었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함께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 같은 믿음을 주는 분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고자 했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같은 꿈을 품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예배는 이재훈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故 하용조 목사는 1976년 한국 최초의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으며, 1980년 두란노서원을 창립하고, 1985년 온누리교회를 설립했다. 또한, 2005년에는 CGNTV를 설립하고, 2007년 첫 러브소나타를 개최했으며, 2010년 NGO 다뜻진세상을 창립했다. 저서는 90여 권의 도서를 집필했다. 최승연 기자



“교인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 성장의 위기 넘어 선교적 교회로

[미주 기독일보 통권 1000호 특집] 양춘길 목사의 삶과 목회(1)

미주 기독일보가 오프라인 지면 통권 1000호를 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민교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23년을 돌아보며, 미주 기독일보는 이민교회의 역사를 함께 일궈 온 우리 주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 낯선 땅에서 역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닦고 교회를 세운 이들의 목회와 간증은 한인 이민자의 생생한 기록인 동시에, 저마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번 순서에서는 필그림선교교회(당시 필그림교회)를 개척해 오느까지 이끌어 온 양춘길 목사의 목회 여정을 들어봤다.

양춘길 목사의 목회 여정은 외형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답을 찾아온 과정이었다. 안정된 엔지니어의 길을 걷던 그는 어린 시절 품었던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붙들었고, 신학교와 부목사 사역을 거쳐 담임목회의 길에 들어섰다.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그 성공의 한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야망과 영적 매마름을 마주하는 깊은 내적 위기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교인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는 필그림교회를 개척해 평신도가 사역의 주제로 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다. 이후 양적 성장의 한계를 넘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왔다. **[편집자 주]**

◆엔지니어의 길에서 다시 붙들린 어린시절 부르심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는 원래 목회에 뚜렷한 비전을 두고 신학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연구개발 부서에 들어가 엔지니어로 일했다. 주변에는 대부분 석사나 박사 출신들이 있었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나 회사 게시판에 붙은 사람들의 은퇴 공지를 반복해 보면서, 자기 인생의 끝이 너무 분명하게 보였다고 했다. 양 목사는 “나도 여기서 30년, 40년 회사 오고 가며 폐이체크 받아 가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싶었다”라며 “그때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꿈이 다시 생각났다”고 했다. 그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부르신 소명의 시작이었다고 받아들였다.

그 부르심 또한 긴 시간의 고심 끝에 받아들여지게 됐다. 양 목사는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대화하고 기도하며 약 3년 동안 갈등했다. 사실 어린 시절만 해도 목회자의 길은 낯선 소명이 아니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외할머니는 늘 그에게 목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어머니 역시 자식 가운데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을 내어놓겠다는 헌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섬기며 자라온 그는 한때 자연스럽게 자신은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며 생각은 달라졌다. 이제는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꿈,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더 크게 자리잡았고, 실제로 좋은 직장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본래의 부르심을 일깨우셨다고 그는 회고했다.

신학교 시절에도 그의 관심은 단지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신학교에 한인 학생이 30~40명 있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메달라 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지하실에 모여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양 목사는 “신학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면의 뜨거움이 식어 가는 것 같았다”라며 “몇 사람이 우리끼리라도 새벽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숙사 지하실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다”라고 돌아봤다. 그에게 신학 공부는 지식을 쌓는 일만이 아니라, 영적 중심을 잃지 않는 싸움이기도 했다.

목회 여정 또한 단숨에 개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양 목사는 프린스턴 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나성영락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며 대형 이민교회의 다양한 목회 현장을 경험했다. 1992년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오렌지 한인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4년간 섬겼다. 이후 미시간에서 약 1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목회자의 정체성과 목회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을 지나 1997년 뉴저지에서 필그림교회를 개척했다. 그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부목

사 사역과 담임목회, 성찰의 시간을 차례로 통과하게 하시며 개척을 준비시켜줬다고 고백했다.

◆양적 성장의 성공 뒤에 찾아온 깊은 위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전환점은 첫 담임목회지에서 찾아왔다. 36세에 비교적 안정된 중형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는 젊지만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눈에 보이는 성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는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외적 부흥과 달리 내면은 점점 메달라 갔다. 양 목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며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인간적인 야망이었다”라고 했다.

결국 그는 목회자로서 깊은 위기에 봉착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한 끝에 사임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그의 목회를 바꾼 한마디가 있었다. 은퇴를 앞둔 한 이민목회자로부터 들은 “교인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그 전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인들을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본 면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사람은 앞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식의 태도가 자신 안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다. 양 목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목회자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처럼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라며 “그때부터 목회는 사람을 활용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순례자의 이름으로 시작한 필그림교회

첫 담임목회지에서 얻은 “교인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깨달음은 뉴저지에서 필그림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의 근간이 됐다. 양 목사는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보내셨는지, 어떤 필요와 아픔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했다. 양 목사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눈으로 보지 말자고 했다”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자고 했다”고 회상했다.

양 목사와 개척을 준비하던 가정들은 1997년 1월부터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다. 당시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있던 양 목사는 주말마다 뉴저지로 오가며 개척을 준비했다. 그해 4월 6일 부활절 다음 주 일 오후 1시, 뉴저지 클리프턴의 노스사이드기독교개혁교회에서 양 목사와 10가정 등 모두 11가정이 첫 개척예배를 드렸다. 성인과 어린이를 합해 39명이 참석한 어린이자랑 이중언어 예배였다.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개척교회였지만, 이민자와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뜻을 모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필그림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창립예배를 드렸다.

교회 이름도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담아 정했다. 양 목사는 1세와 2세가 함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하던 중, 신학교에서 이상현 박사에게 배운 이민신학을 떠올렸다. 그가 기억한 핵심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민자들에게 이르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양 목사는 이 표현이 자신들이 세우려는 교회와 잘 맞는다고 여겨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셋방살이에서 파라무스 성전까지의 여정

필그림교회의 초기 여정은 예배처소를 찾아 옮겨 다니는 셋방살이의 연속이었다. 클리프턴에서 출발한 교회는 약 7개월 만에 잉글우드 웨스트사이드장으로 교회로 옮겼고, 그곳에서 약 2년간 예배드린 뒤 같은 잉글우드 지역의 세인트폴 성공교회로 다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 목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외형보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필그림교회의 성장이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주신 은혜로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자 했다고 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평신도 사역, 말씀 중심의 목회가 성장의 중요한 밑바탕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새가정만을 단순한 교회 소개 과정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자리로 운영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으며, 개척 초기부터 커피비레이크 소그룹 성경공부를 도입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 갔다. 양 목사는 “목회자가 하는 대로 평신도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제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다.

말씀과 제자훈련으로 기초를 다진 필그림교회는 여러 예배처소를 거처며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다 파라무스의 교회 건물을 만나면서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성도 수와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였지만, 성도들은 건물을 함께 둘러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물”이라고 고백했다. 양 목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 건물을 준비했고, 그 건물에 들어간 뒤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다”고 말했다.

필그림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약 1,500명 규모로 성장했고, 이후 3천여 명이 모이는 미주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중 하나로 일순간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양 목사가 기억하는 성장은 숫자에만 있지 않았다. 평신도들이 예배와 교회 내부의 일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가 사역의 주제로 서는 변화가 더욱 의미 있었다.

◆교회 밖으로 이어진 평신도 사역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은 교회 개척 시기부터 일찍이 뛰어든 사역이다. 필그림교회는 개척 2년 만인 1999년, 자체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도 전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필그림사역센터를 교회 부속기관으로 세웠다. 센터는 노숙자와 노인, 장애인, 환자와 재소자를 돌보는 사역과 함께 장학사업과 해외선교 지원 등을 펼쳤다.

사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2007년에는 비영리법인 ‘필그림하우스’로 공식 출범했고, 청소년 상담과 선도, 장학 및 사회복지 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1년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로 옮겨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혔으며, 2015년에는 명칭을 ‘네이버플러스’로 변경하고 교회에서 독립한 지



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양춘길 목사 ©미주 기독일보



필그림선교교회 미션센터 ©교회 측 제공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전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12월31일 첫 예배를 드리고 필그림선교교회로의 새출발을 알렸다. ©교회 측 제공



필그림선교교회 미션센터에서 2026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던 모습. ©교회 측 제공

역사회 봉사재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네이버플러스는 정부 복지프로그램 안내와 신청 지원, 호스피스와 환자가족 돌봄, 청소년 상담, 싱글부모 지원, 노숙자 사역과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돕고 있다.

양 목사가 특별히 기억하는 장면도 평신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이웃을 섬기던 모습이었다. 성도들은 수년 동안 한 달에 한두 차례 뉴욕 할렘을 찾아 현지 흑인교회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양 목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에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들이 교회 안의 봉사자를 넘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 내는 사역의 주제로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계속]**

미주 기독일보 김대원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형제들 교회의 니카라과 연합선교 “함께할 때 선교는 더욱 풍성합니다”

미국교회 Forest Hill Church도 동참,
세 교회 협력으로 우물 프로젝트·다양한 사역 결실 맺어

사해를 형제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 각 아틀란타 새생명교회와 살롯제일장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형근 목사와 설대역 목사가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다시 동역자로 만났다.

살롯제일장로교회(담임 설대역 목사)와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담임 한형근 목사)는 두 교회는 2025년부터 “한 교회가 홀로 감당하기보다 두 교회가 힘을 모으면 더 풍성한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니카라과 연합 단기선교를 시작했다.

올해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Forest Hill Church South Boulevard Campus를 담당하는 롤랜드(Roland)목사까지 동참하면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하는 뜻깊은 연합선교가 펼쳐졌다.

올해 니카라과 연합 선교에서는 안경 사역과 치과 사역, 사진 사역, 여름성경학교(VBS) 사역 등이 진행됐으며, 각 교회가 가진 은사와 경험은 선교지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귀한 도구가 됐다.

무엇보다 여름성경학교 사역은 특별한 감동을 남겼다. 두 한인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준비 과정부터 현장 사역까지 함께 섬겼다.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인 다음세대가 복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현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모습은 연합 사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기성세대의 헌신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권사들과 집사들은 눈에 띄는 자리를 구하기보다 필요한 곳에서 묵묵하고 신실하게 섬겼다. 이들의 헌신은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함께한 다음세대에게도 살아 있는 믿음의 본이 됐으며, 청년들의 열정과 기성세대의 신실함이 어우러져 선교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다.

연합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려도 있었다. 서로 낮은 두 교회의 성도들이 먼 니카라과 땅에서 과연 하나의 팀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실제로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다. 교회마다 문화와 사역 방식이 다르고,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수고가 따랐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 모인 성도들은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기보다 서로를 먼저



왼쪽부터 살롯제일장로교회 설대역 목사,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한형근 목사, Forest Hill Church South Boulevard Campus 롤랜드 목사. ©교회 측 제공

배려했고, 다름을 인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다. 그 결과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사역을 이루는 힘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 모인 성도들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는 달랐지만, 복음을 전하고 현지 주민들을 섬기려는 마음은 하나였다.

한형근 목사는 “교회 이름은 달랐지만 선교지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연합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번 선교에서는 사랑의 열매도 맺혔다. 올해 니카라과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지 선교자인 에덴학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세 교회는 약 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함께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느 한 교회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필요를 세 교회가 함께 짚어낸 것이다. 이 결정은 현지 선교사 부부와 에덴학



사역을 위해 만난 세 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교에 큰 위로와 선물이 됐으며, 선교팀 모두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겼다.

설대역 목사는 “이번 니카라과 연합선교는 교회가 함께할 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며 “다음세대의 열정과 기성세대의 헌신,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의 동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한 교회만으로는 미처 꿈꾸지 못했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 교회는 앞으로도 단기선교를 넘어 다양한 사역에서 연합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역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김민선 기자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제20기 출범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광역시에틀한인회관에서 제20기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기승 이사장의 주재로 제20기 축제재단을 이끌어갈 주요 임원들에 대한 인준이 이뤄졌다. 제20기 축제재단은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축제재단을 이끄는 조기승 이사장은 태권도 교육자로 30여 년 이상 차세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 왔으며, 서북미 한인화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워싱턴주를 비롯한 서북미 한인사회의 화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또한 한인의 날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주류사회 간의 교류 확대에도 힘써 왔다.

신임 대회장으로 인준된 이미숙 씨는

전 재미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미주 차세대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계승에 크게 기여해 온 교육계 지도자이다. 오랜 기간 한국학교 발전과 교사 양성,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헌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20기 한인의 날 행사를 총괄하게 된다.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연 씨는 AKA 디렉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다. 뛰어난 기획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번 한인의 날 행사 준비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을 맡게 된다.

감사에는 전 광역시에틀한인회 회장을 역임한 서용환 씨가 인준됐다. 서 전 회장은 한인사회 발전과 단체 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축제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인의 날 축제재단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주최 측 제공

재무에는 오보경 씨가 인준됐다. 오 재무는 지역사회 봉사와 재단 운영에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20기 축제재단의 예산과 회계를 책임지며 안정적인 재무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20기 한인의 날 축제재단은 조기승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미숙 대회장, 김지연 준비위원장, 서용환 감사, 오보경 재무 등 핵심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원팀’ 체제를 구축했다.

조기승 이사장은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행

사”라며 “역대 어느 때보다 화합하고 성공적인 한인의 날 행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회장과 준비위원장이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워싱턴주 한인의 날 행사를 한층 발전시키고, 한인사회의 화합과 차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0기 축제재단은 앞으로 임원들을 더 보강하고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후원 유치, 차세대 참여 확대, 문화행사 기획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손기철 박사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

손기철 박사(사진)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앤젤러스 템플(Angelus Temple)에서 열린 ‘하나님 나라와 치유 복음성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령의 사역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손 박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본 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이지,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나 인간이 세우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자유와 치유가 나타난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왕으로 오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박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새 언약의 성취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 온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존재와 생각, 감정을 새롭게 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다”고 말했다.

이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타락으로 왜곡된 창조 목적을 회복해 가신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맥 기자



보령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원동연 박사 “AI 에이전트 시대, 생존의 핵심은 인간력”

하베스트대학교 ‘AI 시대의 교육 전략’ 특강서 전해

과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전인교육과 교육 선교에 앞장서 온 원동연 박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사고력과 인간력,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하베스트대학교(총장 이성상 박사)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 원동연 박사의 ‘AI 시대의 5차원 교육: 2.7%를 바라보며(AI에이전트)’에서 원 박사는 “사고력이 감소되는 AI 시대에는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며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절대 적지 않다. 이 적은 소수의 양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류 전체에서 2.7%는 2억 명이 넘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 사회, 국가와 민족도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가는 글로벌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동연 박사의 ‘AI 시대의 교육 전략’ 특강은 7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진행했으며, 1강 ‘AI와 인간력(5차원 리프레임)’, 2강 ‘창조적 지성(책 만들기)’, 3강 ‘언어 수용성(영어글과 대담 PPT)’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강의였다.

원 박사는 이날 먼저 바닷물 소금 농도인 2.7%를 언급하며 “제가 100명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이야기하면 세 명 정도가 이해하고 간다”며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절대 적지 않다. 이 적은 소수의 양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류 전체에서 2.7%는 2억 명이 넘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 사회, 국가와 민족도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으로 가는 글로벌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 박사는 이날 강의의 핵심 개념인 AI 에이전트를 소개했다. 기존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는 수준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목표만 제시해도 계획과 실행, 결과 도출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 박사는 “사람을 대신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AI가 신입 직원을 대체하던 이전 수준을 넘어, 팀 전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20대가 5만 명이 넘어선 현상 역시 AI가 이미 신입 직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의 기술적 진보 이전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짚었다. 원 박사는 “AI가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고, 인간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I를 활용

엄청난 자료로 멧있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사고력이 약화하면 결국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알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게 되기 쉽다고 본 것이다. 원 박사는 “사도 바울도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기반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려 한다(고전 2:4-5)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인간력 바탕으로 시를 고도화해야**”
그렇다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약화하기 쉬운 인간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 박사는 인간력을 갖기 위해 △인성 교육 리프레임으로 자력심리체력자기관리 인간관계 훈련하기 △학문의 9단계를 통해 지적 틀(색안경) 벗기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중 언어 사용하기(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융합수리를 통해 사고력의 깊이를 만들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구축하기(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구축되는 데까지 가기)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오늘날 주목받는 AI 에이전트인 젠스파크(Gensparks), 펠로우(Fellow), 헤르메스 에이전트(Hermes Agent) 등을 직접 경험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대안적 교육으로는 원 박사가 34년간 계속해 온 5차원전면 교육을 제안했다. 자력심리체력자기관리 인간관계능력 등 다섯 영역을 회복하는 전인격적인 인성교육이 곧 인간력을 자기는 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 박사는 “AI 공부부를 많이 해야 한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다 배워라”며 “그런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인간력을 바탕으로 AI를 고도화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력을 바탕으로 AI를 고도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글을 읽고 내 생각 쓰기 △내 생각을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 만들기(책, 음악, 계획, 사역 등) △내 생각을 AI를 활용하여 피드백하고 다시 레벨을 높여 쓰기를 제안했다.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AI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경 묵상하고, 그다음 AI로 생각의 수준 높이길**”

원 박사는 인간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좋은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크리스천들은 좋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요즘 많은 교회에서 AI를



원동연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활용해 성경을 만화, 동영상으로 시각화하여 성경 이해를 돕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며 내 생각을 직접 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내 생각을 AI를 활용해 책, 음악으로 만들고, 계획을 세워 사역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여, 이를 통해 내가 점점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 박사는 “내 생각을 AI를 활용해서 피드백 받고, 문제를 찾아 다시 내 생각을 써야 한다. 이렇게 내 생각의 수준을 높였을 때 더 높은 수준의 AI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며 “자기 생각을 높이지 않고 이것저것 AI를 돌려 좋은 것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그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

원 박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열역학의 ‘핵생성의 원리’, ‘핵생장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했다. 물이 어는 점인 0°C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과냉각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것은 온도 변화 자체가 아니라 물속에 존재하는 얼음의 ‘핵’이 에너지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원 박사는 “우주도 A가 B로 바로 바뀌는 것이 없다. A 안에 B의 핵이 생기고, 그 B의 핵이 에너지를 받아서 자라났을 때 B가 된다”며 “교육도 사람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핵을 심어주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핵이 고통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외부 에너지’가 들어올 때 점점 자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 핵이 들어오면 어느 시점에 그것이 자라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과 같다”며 “그 원리를 잘 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교육도 핵을 넣어 주고 핵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박사는 이처럼 인간이 하는 교육만으로는 사람을 바꾸는 데 분명 한계가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원 박사는 “5차원 교육을 매일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더럽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우리의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진짜 발전시킨다”고 격려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목회자, 성도뿐 아니라 캄보디아, 인도, 르완다 등 해외 선교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AI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인간력을 잃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AI 중독을 걱정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동연 박사는 5차원 부모 교육 실천특강을 8월 3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온라인 줌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하베스트대학교는 명사 초청 ‘AI 시대를 여는 3개월 특별 강좌’를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이다. 7월은 원동연 박사의 ‘AI 시대의 교육 전략’, 8월은 김중필 선교사의 ‘AI 시대의 기독교 선교’, 9월은 한철호 선교사의 ‘AI 시대의 세계 선교’ 강의가 각 4주씩 진행된다.

◆원동연 박사=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제연구실장을 지낸 과학자다. 이후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교육 선교의 길로 들어서 ‘5차원전면 교육’을 정립했으며, 이는 국내 공공 교육 및 대안 교육 현장은 물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국가 미래 교육 모델로 선정되며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외에서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몽골국제대학교 총장, 탄자니아연합대학교 설립총장, 르완다연합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선교 현장에 발자취를 남겼다.

특별기고

해외선교 세제 개정에 따른 한국교회의 과제

2026년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은 종교 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종전보다 크게 축소하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법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방식과 재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임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를 대응하기 위한 단기와 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공익법인 범위 축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개정)

(종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 사업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개정)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상증령 제12조의 개정으로 종전의 종교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만 하면 종교 단체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공익법인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종교단체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과 거주자로 한정함으로써 인해서 외국법인 혹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국내교회나 선교 단체가 외국법인과 해외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불산입 적용이 어려워졌고,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재정 지원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단의 해외 지출로 인하여 축출된 해외 선교비의 규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

II. 일반기부금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국내 소재 종교단체만 포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 마목 개정)

(종전) □ 외국 소재 소속 단체를 포함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의 외국 소재 소속 단체 포함

(개정) □ 국내 소재 소속 단체에 한함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비영리법인의 국내 소재 소속 단체에 한정

법인령 제39조의 개정으로 종전의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에서 국내 비영리법인의 해외 소속 단체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내에 있는 소속 단체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개인이 해외교회나 해외 선교법인, 해외 선교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만약 국내 종교단체가 내국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해외선교 목적의 특정 기부금을 수령하여 해외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과 개인의 기부금 영수증은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해외선교비 집행 시 고려할 사항

첫째,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적 사례비에 대하여는 향후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로 처리하는 방안과 선교사의 최소한의 필요경비성 활동 경비는 선교활동비 규정을 정관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해외부동산과 재산구입 관련 지출, 해외 구제 활동을 위한 지출, 해외 사회사업을 위한 지출 등에 대하여는 수령자의 법적 지위와 과세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의 보류 및 필요한 경우 지급보류 사유와 향후 절차 등을 공식 문서로 안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해외 선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청의 불완 요소인 사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배경) 공익법인의 상증법상의 사후관리 방식과 유사한 체계 유지

(원칙) ① 한국교회 연합체가 인정하는 공적 조직을 통한 선교체계 ② 선교사는 위 공적 조직의 구성원으로 등록 ③ 선교사 교육 이수(사후관리) 후 파견 ④ 선교사의 종교인소득 신고와 선교활동비 규정의 정관 처리

넷째, 한국교회총연합회는 교단들과 연대하여 재정경제부와 국제청의 개정세법 운용과 처리 방향에 자체 사후관리 방안의 도입 등으로 설득과 이해를 얻어야 한다.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총연합 세정대책위원장,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다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사 5사 중 1위
(11개소)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KOMIPO
한국중부발전

美, 나이지리아 목회자 가족 9명 피살 규탄

“기독교인 보호 위한 긴급 조치 필요”

미국 정부가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에스겔 다초모(Ezekiel Dachomo) 목사의 친인척 9명이 살해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기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무부 아프리카국(Bureau of African Affairs)은 프랭크 가르시아(Frank Garcia)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논의했으며, 이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가해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지역 치안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 가족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듯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기독교인과 기타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치안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며 “미국은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기독교인을 비롯한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이 폭력과 박해의 두려움 없이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다초모 목사가 “공포가 삶의 방식이 됐다”며 미국의 개입을 호소한 영상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 의해 공유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초모 목사는 지난 24일 공개한 기도 요청문에서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찾아 신앙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위로하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며 “총성이 들리는 밤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인구 약 2억3천만 명의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신자가 거의 절반씩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Unsplash/Abel Marquez

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 12개 주는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부는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베누에(Benue), 플레토(Plateau), 카두나(Kaduna), 나사라와(Nasarawa)주를 포함하는 중부 ‘미들벨트(Middle Belt)’ 지역은 두 종교가 혼재하는 곳으로,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매체 ‘트루스 나이지리아(Truth Nigeria)’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북부 지역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다초모 목사의 친인척 9명도 포함됐

다.

다초모 목사 가족이 거주하던 마을은 지난 11일 플레토주 주도 조스(Jos) 남쪽의 외딴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후 플레토주와 베누에주에서는 추가 공격이 잇따랐으며, 조스 남동쪽 약 90km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플레토주 의회 의장을 지낸 가브리엘 듀안(Gabriel Dewan)은 희생자 합동 장례식에서 사건 발생 전 판크신(Pankshin) 지방정부 타카스(Takkas) 지역 파이어(Fier) 숲에 정체불명의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했다.

그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북서부의 외딴 지역에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것은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경찰과 군에 해당 지역을 수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건 책임자들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원이 미들벨트 지역까지 확대되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의회에서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 박해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미국과 나이지리아 간 대테러 협력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나이지리아의 유혈 사태와 정부 대응 문제를 마이크 왈츠(Mike Waltz)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 프리카소위원장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무슬림들 역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코하람(Boko Haram), ISIS 서아프리카 지부(ISIS West Africa), 풀라니(Fulani) 무장세력 등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왈츠 대사는 “우리는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관심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테러 분야와 치안 역량 강화에서 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샤리아법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살해당하며, 단지목에 십자가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크루즈 의원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신성모독법과 샤리아법을 통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대규모 폭력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슬람 성전주의 세력의 공격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 답하기보다 비판 세력을 겨냥한 홍보전에 집중해 왔다”며 “미 하원이 이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英 교계, AI 시대 교회 사역 지침 발표… “AI는 인턴이지 전문가 아냐”

영국 전역의 교회들이 인공지능(AI)을 보다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AI 크리스천 파트너십(AI Christian Partnership, AICP)은 과학과 신앙 연구기관인 패러데이 과학·종교 연구소(The Faraday Institute for Science and Religion)와 공동으로 ‘기독교 사역을 위한 AI 지침(AI Guidelines for Christian Ministry)’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교회 사역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AI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ICP는 생성형 AI가 많은 교회에서 ‘조용히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챗 GPT(ChatGPT), 제미니(Gemini), 코파일럿(Copilot) 등 생성형 AI를 설교 준비와 목회, 교회 행정 등에 활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AI 활용이 가져올 윤리적·목회적·적실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일상적인 활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각 교회가 자체적인 AI 운영 원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성령서 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비록 교회 지도자를 주된 대상으로 작성됐지만, 제시된 윤리 원칙과 실천적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집필진은 밝혔다.

AICP 설립자인 크리스 고스와미(Chris Goswami)는 교회가 아무런 고민 없이 AI를 받아들이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역을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AI의 진정한 영향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교회는 지금부터 이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초 4개 교단 소속 교

회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됐으며, 영국 내 전문가들의 검토와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수정됐다.

보고서는 교회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행정 업무와 자료 조사, 번역, 창의적 작업 등에서는 AI가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 생성, 비판적 사고의 약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영적 성숙 저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약화 등 다양한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특히 AI는 신체성을 지니지 않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목회 사역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는 AI를 ‘전문가가 아닌 인턴처럼’ 대해야 한다며,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작업을 점검하거나 개선하는 용도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패러데이 연구소의 교회 협력 책임자이자 AICP 핵심팀 멤버인 루스 뱅체비츠(Ruth Bancewicz)는 “이번 지침은 그리스도인들이 AI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는 “AI를 숙고하며 책임 있게 접근하도록 권면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매우 환영할 만한 기여”라고 말했다.

AICP는 이번 자료가 지나치게 정책 중심이거나 학문적인 AI 윤리 논의와 단순한 조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됐으며, 규모와 전통이 다른 다양한 교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AI의 교회 사역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패러데이 연구소는 지난해 그레이엄 버드(Graham Budd)의 주도로 인류를 위한 AI(AI for Humanity)’ 연구 허브를 출범시

켜,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 영성 형성, 인간 존재의 본질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신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참여해 AI가 인간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바나(Barna)와 푸시페이(Pushpay)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글쓰기와 소통, 콘텐츠 제작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AI 사용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을 마련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표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설교의 진정성, 목회자와 성도 간 신뢰 약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옥스퍼드대 수학자 존 레녹스(John



©Unsplash/Solen Feyissa

Lennox)는 지난 5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방송협의회(Christian Broadcasting Council) ‘리바이브 2026(Revive 2026)’ 콘퍼런스에서 의료와 성경 번역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비판적 사고가 약화되고 사회 전체가 나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을 속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경 기자



매니 파퀴아오 “인생 짧아 구체적 영혼 구원 목표 세워야”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서 강연,
방탕했던 과거 고백하며 청년 세대 선교 헌신 촉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계적인 복싱 전설에서 기독교 전도사로 변신한 필리핀의 매니 파퀴아오가 아시아 기독교 청년 리더들을 향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선교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7월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파퀴아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한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Arise Asia 2026 Congress)'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50여 개국에서 참석한 약 4천 명의 기독교 청년 리더들에게 자신의 과거 삶과 회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하며 일상 속에서 타인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8계급 세계 복싱 챔피언이자 필리핀 상하원 의원을 지낸 파퀴아오는 최근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협의회(PCEC)로부터 국제 전도사로 공식 임명됐다. 그는 히브리어 12장 2절을 바탕으로 '기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기독교 선교 대회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적극적인 영혼 구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파퀴아오 강연의 핵심은 신앙적 의도성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다. 그는 마28장에 명시된 지상명령을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막연한 개념으로 남겨두지 말고 개인의 구체적인 헌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일 년 동안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단 두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년에는 다섯 명으로 목표를 늘려가는 방식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현재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밝혔다. 파퀴아오는 청년 리더들 역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독교 선교 실천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특히 그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인간 삶의 유한성에 빗대어 설명했다. 파퀴아오는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로 묘사하며 이처럼 짧은 일생 동안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가 기독교인으로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자신의 과거 방탕했던 삶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에서 매니 파퀴아오가 발언하고 있다. ©CDI

을 언급하며 술과 도박에 빠졌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어떻게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했다.

파퀴아오는 많은 기독교인이 직면하는 영적 장애물인 교만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신자가 스스로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안일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결국 성경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신자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이 영적 퇴보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기독교

교계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성경 암송과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영적 훈련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파퀴아오는 삶에 시련이 닥칠 때 육체적인 힘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으며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내면을 강건하게 다져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반부에서 파퀴아오는 인격적 변화 없이 지식만 축적되는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경계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 겸손 대신 교만이 커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에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바른 대안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실천적인 믿음을 제시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이웃을 돕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파퀴아오는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파퀴아오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청년 리더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최승연 기자

앤드류 브런슨 선교사, 튀르키예 감옥 침묵 속 십자가 사랑 증언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마닐라 대회 셋째 날 저녁 주강사로 나서... 청년 세대 2년 옥고 경험 바탕 선교 헌신 촉구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튀르키예에서 23년간 사역하다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억울하게 투옥돼 2년의 옥고를 치른 미국인 선교사 앤드류 브런슨이 아시아 기독교 청년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는 선교적 헌신을 촉구했다고 7월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지난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 셋째 날 저녁 집회 주강사로 강단에 올랐다. 2018년 석방되기까지 미국과 튀르키예 간 대형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던 그는 이날 4천여 명의 아시아 기독교 청년 리더들 앞에서 튀르키예 감옥 수감 당시 겪었던 깊은 영적 침묵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개종자를 늘리거나 영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체포되기 20년 전인 2007년 기독교 복음화율이 극도로 낮은 튀르키예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당시의 기도가 자신을 감옥이라는 뜻밖의 고난으로 이끌었다고 회고한 그는 수감의 과정 역시 하나님에 부여하신 치열한 선교적 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옥의 질은 침묵 속에서 증명된 십자가 신앙

브런슨 선교사는 철저한 독방 생활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수감 환경이나 거칠고 노예 같은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독한 침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극심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그를 지탱하게 한 원동력은 아내 노린의 헌신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함께 체포됐다가 2주 만에 석방된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주변의 권고를 거부하고 끝까지 튀르키예에 남아 옥바라지를 자처했다. 브런슨 선교사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극도의 위험을 무릅썼다고 전하며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감 생활 중 그는 매일 두려움과 절



튀르키예에서 23년간 사역한 뒤 간첩 혐의로 투옥됐던 미국인 선교사 앤드루 브런슨. ©CDI

망과 싸우며 자신의 뜻을 꺾는 훈련에 매진했다. 마음이 찢겨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 밤 40분 이상 찬양을 불렀으며 수감 2년 차부터는 좁은 감방에서 홀로 춤을 추며 신앙을 고백했다. 필박을 받을 때 기빠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후 재판을 위해 이감된 곳에서 거짓 증언에 시달리며 극한의 트라우마에 직면했던 그는 하나님에 침묵하시

고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게 두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과 기독교 선교의 본질

석방 이후 브런슨 선교사는 투옥 기간 겪었던 고통이 과거 자신이 드렸던 기도

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모욕과 배신 버림받음의 고통을 은모음으로 겪어내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필박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깊은 내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영적 갈망의 순간이 그림자도 털어놓았다. 브런슨 선교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어라이즈 아시아 2026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기독교 청년 리더들에게 선교의 길이 요구하는 무거운 대가를 깊이 헤아려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20년 전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려볼 것을 권면하며 비록 그 길에 험난한 고난과 기독교 박해가 따를지라도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될 것이라는 선교적 비전을 제시했다.

최승연 기자

수단 반군, 기독교 목사 및 일가족 5명 납치

남코르도판주 무장 단체 소행 추정,
몸값 요구 없이 기독교 표적 테러 자행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무장 반군 세력이 기독교 목사와 일가족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단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표적 테러를 잇달아 자행하면서 현지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지 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단 남코르도판주 헤이반 타운에서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SPLA-N) 이탈 무장정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수단 그리스도 교회(SCOC) 소속 야곱 이브라힘 티아 목사의 자택에 난입해 목사를 납치했다. 현장에서는 야곱 목사의 17세와

20세 된 두 아들과 15세 조카도 함께 납치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던 가톨릭 신부 파디 이브라힘 티아의 형제인 다니엘 이브라힘 역시 무장 단체에 끌려갔다.

◆기독교 지도자 표적 납치
파디 신부는 사건 발생 장소가 야곱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건물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밝혔다. 현지 관계자들은 납치범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몸값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목적보다는 지역 사회의 불안

을 조장하고 기독교계를 위협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적 테러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대상 납치 사건 중 금전을 요구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파디 신부는 최근 이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납치 사실이 접수됐으나 아직 뚜렷한 수사 진전은 없는 상태다. 피해자가 죽들은 납치된 야곱 목사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 이탈 세력의 기독교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곱 목사와 납치 이틀 뒤인 25일에는 헤이반 지역 다비 행정 구역에서 수단 성공회 소속 아벨 이드리스 종교 목사가 동일한 무장 단체에 의해 사살됐다. 앞서 23일에도 헤이반 타운에서 신원 미상의 기독교인 다수가 사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됐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남코르도판주 카우다의 한 성당에서 가톨릭 신부와 경비원이 목숨을 잃었다.

◆수단 내전 장기화, 박해 국가로

CDI는 남코르도판주 누바 산맥 일대는 오랜 기간 수단 중앙 정부에 맞서는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의 주요 거점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발발한 수단 내전 초기에는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수단 인민해방군 북부가 정부군(SAF)에 대항해 신속지원군(RSF)과 연합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반발한 이탈 무장파벌들이 형성되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대규모 피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수단 내전을 주도하는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모두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군벌이다. 이들은 피난길에 오른 기독교인들에게 적대 세력을 지원한다는 혐의를 씌워 무차별적인 폭력과 종교 탄압을 가하고 있다.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수단은 인구의 9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수단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수만 명이 사망하고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 K조선 미국 공략 속도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화
한화·HD현대·삼성중공업 현지 사업 확대

국내 조선업체가 상반기 수주 호조에 이어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삼고 사업 확대에 나섰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본격화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수출을 넘어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특수선 건조,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율운항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 등 미래 조선 기술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올랐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는 협력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K조선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지 주목하고 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 15건 MOU 체결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O) 개소식을 열었다. 양국이 지난 5월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미국 현지 거점 역할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생산성 컨설팅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교류, 직접투자 등 양국 기업의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개소식에서는 '딥 코리아' 구축을 비롯해 공급망 협력, 전문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미 조선협력센터 등 6개 기관은 미국 사업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지원할 '딥 코리아'를 구성했다.

한미 양국은 전체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한미 공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 필리조선소, 미국 특수선 시장 진출

한화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골든 디펜더' 건조를 맡았다. 토트서비스가 선박 건조 관리를 담당하고 한화 필리조선소가 필라델피아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한다.

MRIV는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시험의 제적과 원격측정 자료 등을 추적

수집하는 특수선이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군함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군 관련 특수선이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상선 건조를 넘어 미국 방산 조선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첫 번째 MRIV는 2030년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삼성중공업, 디지털·자율운항 협력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선박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소 설계와 운영 체계, 생산 기술까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제임스 인터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선박 설계 생산용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디지털 조선

소 구축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방산 기술기업 세로닉 테크놀로지스와 미국 조선소에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무인수상정(USV)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기술과 AI 기반 디지털 솔루션,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 마린그룹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용접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해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을 계기로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사업이 개별 수주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협력 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정과 특수선 건조,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조선산업 전반에서 한미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가 K조선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소상공인·전통시장 8월 경기전망 연중 최저

전망 BSI 각각 71.0·66.5 기록
경기 부진·계절적 비수기·매출 감소 영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8월 경기전망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7월 체감경기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경기 회복 기대가 한층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8월 전망 경기실사지수(BSI)는 소상공인 71.0, 전통시장 66.5로 집계됐다. 두 지수 모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연중 최저치는 지난 1월 기록한 소상공인 76.1, 전통시장 69.7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지수 모두 1월보다 낮아지며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운영자가 체감하는 현재 경기와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 100이면 보합,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부동산·수리업 전망 큰 폭 하락
소상공인 업종별 8월 전망 BSI에서는 부동산업이 63.9로 전월보다 16.5포인트 하락했다. 수리업은 11.9포인트 떨어진 67.4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판매실적과 자금 사정, 비용 상황, 구매고객 수 등 모든 부문에서 전월보다 악화됐다. 지역별로도 전남이 80.6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산물 업종의 전망 BSI만 전월보다 상승해 72.5를 기록했다. 판매실적과 자금 사정, 비용 상황, 구매고객 수 등 4개 부문의 전망은 모두 나빠졌다.

지역별 전통시장 전망 BSI는 강원과 부산, 경남, 세종에서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락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운영자들은 8월 경기전망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꼽았다. 계절적 비수기와 매출 감소가 뒤를 이었다.

◆7월 체감경기도 동반 부진
지난 7월 체감경기도 부진했다. 소상공인의 7월 체감 BSI는 55.6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체감 BSI는 50.5로 지난 3월의 43.9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낮았다.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 체감 BSI가 전월보다 상승한 곳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뿐이었다. 해당 업종의 체감 BSI는 58.5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업의 체감 BSI는 49.3, 교육 서비스업은 76.6으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상공인

공인 체감 BSI가 모두 하락했다.

전통시장 업종에서는 음식업의 체감 BSI가 56.2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55.1로 유일하게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운영자들은 7월 체감경기가 나빴던 가장 큰 이유로도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 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영업장 37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나래 기자

우울증, 의지만으로 이겨내는 병 아니다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등이 지속되면서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일시적 기분 저하와 달리 정서·작신·체제 고통을 동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 우울감과 피로, 수면·식욕의 변화, 집중력 저하, 불안, 죄책감 등이 있다. 심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삶의 의미를 찾기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울증을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의 문제로 여기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저하가 2주 이상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했다.

◆우울증 치료, 꾸준한 진료와 주변의 지지 중요

우울증은 전문가 면담과 증상 평가를 거쳐 진단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를 비롯해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개인·집단 정신치료 등을 시행했다.

항우울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치료를 이어가야 했으며 치료 효과와 기간은 환자마다 달랐다.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약을 끊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됐다.

주변 사람의 태도도 회복 과정에 영향

을 미쳤다. 환자를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무조건 힘을 내라고 재촉하기보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다.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니며 시간이 흐른다고 반드시 저절로 나아지는 질환도 아니었다. 적절한 시기에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증식 변동성에 커지는 '주식 우울증'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와 관련한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주가가 오르면 자신만 기회를 놓쳤다는 불안에 빠지고, 하락하면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면증과 무기력을 겪는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자신만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인 포모(FOMO)가 커지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다. 투자 결과를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상 수익 인증을 계속 살펴보는 행동도 불안을 키울 수 있었다.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나만 빠고 큰 수익을 냈다”거나 “완벽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나만 모른다”는 식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투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주식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을 끄고 하루 중 앱을 확인하는 횟수를 제한할 것을 권했다.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영상, 오픈채팅방 등을 정리하는 것도 정보 과부하로 인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이 수면이나 업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했다.

◆직장인 번아웃,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아야

직장생활에 의무적으로 몰두한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번아웃은 장기간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신체·작신·정서적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의미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거나 업무에 대한 냉소와 무기력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했다.

윤현철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편안한 대화와 운동, 여가활동 등을 통해 재충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속될 때는 전문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대표님!

브리티 코파일럿으로

회사의 성장동력에 날개를 다십시오

성장은 언제나 혁신으로부터, 기업 최적화 생성형 AI가 업무 방식을 혁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AI,
브리티 코파일럿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 등 편리한 오피스 기능 | 강력한 검색 기능 | 믿을 수 있는 보안 | 실시간 자막, 회의록 작성 등 편리한 회의 지원 | SEAMLESS하고 쉬운 사용성

SAMSUNG SDS

‘유대-기독교’ 전통이 서방 세계에 남긴 위대한 유산

신약과 구약, 그리고 정치 철학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각) 루크 문(사진)의 기고글 ‘유대-기독교 전통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문명이 다를 개재했다. 루크 문은 ‘제네레이션 시온’ 설립자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계 회장단 회의’ 공동의장이며 헤리티지 재단 객원연구원이다. 다음은 기고글의 주요 내용이다.

루크 문은 최근 반유대적 정서가 주류 담론에 다시 등장하면서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됐다고 밝혔다. 기독교 변증가 웨스 허프(Wes Huff)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 용어가 히브리 성경의 유대적 유산과 신약성경이 결합된 전체 성경을 가리킬 뿐 지정학이나 음모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학문적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유대 민족이 지닌 위치를 인정했지만, 다른 쪽은 유대인과 기독교의 특별한 연관성을 부정했다. 기독교 민족주의 저술가 스티븐 울프(Stephen Wolfe)는 유대적 요소가 기독교 안에 포함돼 있다면 굳이 ‘유대’라는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구약성경의 인물들까지 사실상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문은 이 같은 해석이 후대의 종교적 정체성을 과거에 소급해 본래의 역사적 맥락을 지우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 신앙과 구약성경의 유대적 뿌리를 분리하려는 태도 역시 설득력 있는 역사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학을 넘어 정치문명을 형성한 전통

‘유대-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결합한 신학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와 법, 사회 질서와 서구 문명의 형성에도 깊이 연결돼 있다. 서구 문명은 흔히 아테네와

로마, 예루살렘의 사상 위에 세워졌다고 평가된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구약성경은 법과 재판, 토지와 재산, 통치자의 책임, 전쟁과 평화, 가난한 이들의 보호 등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폭넓은 문제를 다룬다.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가르침은 근대 정치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통치자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직접 읽으며 왕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권력자 역시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한 이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이를 ‘서구 문명은 본질적으로 유대교에 뿌리를 둔 기독교 문명’이라고 표현했다. 서구 사회의 언약과 법, 자유와 책임, 애연자적 심판과 질서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성경의

유대적 유산에서 발전했다는 의미다.

◆히브리 성경과 근대 정치철학

정치 이론가 에릭 넬슨(Eric Nelson)에 따르면 초기 근대 기독교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설계하신 정치적 헌법”으로 이해했다. 랍비 문헌도 이상적인 공화국의 제도와 관습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받아들였다.

존 밀턴과 제임스 해링턴, 토머스 홉스 등은 히브리 성경과 유대교 문헌을 연구하며 왕권과 법, 재산권과 종교적 관용, 국가 공동체의 본질을 탐구했다. 근대 서구 정치사상은 헬라 철학과 로마법뿐 아니라 히브리 성경과 유대교의 법제도적 전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것은 랍비와 유대인 현자들이 같은 주제를 오랫동안 탐구해 왔기 때문이다. 히브리 성경은 근대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사상적 자료가 됐다.

◆미국 건국과 출애굽기의 정치적 상상력

미국 건국자들도 출애굽기를 폭정과 해방, 자유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정치적 언어로 받아들였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국새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파라오가 병거와 함께 물에 휩쓸리는 모습을 새기자고 제안했다. 그 아래에는 “폭군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라는 문구를 붙고자 했다.

출애굽기는 억압받는 백성이 자유를 얻는 동시에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이야기다. 미국 건국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활용했다.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 자위선 안 돼

과거 서구 지식인들은 ‘유대-기독교’를 두 종교를 무리하게 섞는 표현이 아니라, 서구 문명을 형성한 유대적 유산과 기독교적 발전을 함께 인정하는 말로 이해했다. 이 표현에 담긴 유대인의 역사적사상

적 기여도 높이 평가했다.

‘유대-기독교’라는 표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학적 차이를 없애거나 두 종교를 혼합하자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가 히브리 성경과 유대교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시작됐으며, 서구 문명의 법과 자유, 정의와 인간 존엄에 관한 핵심 개념이 두 전통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됐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폐기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으며, 그들이 사용한 성경도 히브리 성경이었다. 창조와 언약, 죄와 속죄, 메시아와 구원,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언어도 유대적 성경 세계에서 형성됐다.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을 약화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시작과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유대-기독교’는 성경의 유대적 유산과 기독교적 발전을 함께 인정하는 말로 이해했다. 이 표현에 담긴 유대인의 역사적사상을 가리킨다.

최승연 기자

상처 입은 이들 곁에 머무는 조용한 헌신

슬픔이 연민으로, 연민이 행동으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지난 7월 28일(현지시각) 벤 무다헤라(사진)의 기고글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어 가는 삶’을 게재했다. 무다헤라는 윌리엄캐리국제대학 교 여성연구소 객원 필진으로, 르완다의 인도주의개발 기관에서 15년 넘게 활동했다. 현재 글로벌 여성 역량 강화를 전공하며 개발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의 주요 내용이다.

르완다는 깊은 상흔을 딛고 다시 일어난 나라지만, 여러 지역의 가정에는 상실과 빈곤, 질병과 사회적 소외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들은 여러 짐을 한꺼번에 떠안고, 아이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굶주림 속에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망 드보라’, 곧 ‘어머니 드보라’로 불리는 자밀라 콘솔라테(Djamila Consolate)는 오랜 세월 이웃을 묵묵히 섬겨왔다.

‘러브 투 헬프(Love to Help)’ 재단 설립



자이자 범정대표인 마망 드보라의 사명은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됐다. 과거 부룬디에 살던 그는 리처드라는 남성과 교제했다. 리처드는 자신이 HIV 양성이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관계를 맺을 때마다 피임을 철저히 하도록 해 마망 드보라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 했다. 당시 마망 드보라는 이를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배려로만 생각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르완다로 돌아온 마망 드보라는 리처드가 HIV 관련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제야 리처드의 행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훗날 “나 역시 리처드처럼 죽을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 숨 쉬는 것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개인적인 슬픔은 낙인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사명으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발견한 부르심

마망 드보라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드보라는 지혜와 강인함으로 백성을 이끌었고, 야엘은 적군 장수 시스라를 몰리쳐 전쟁의 흐름을 바꿨

다. 그는 어려운 사대에도 담대하게 행동했던 두 여성을 보며 “드보라와 야엘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해냈다면, 나라고 왜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었다.

르완다에서 여성들이 지도자로 참여할 기회는 점차 늘고 있지만 완전한 평등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마루지 않았다. 성경 속 에스더처럼 자신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품었다.

◆소외된 여성과 아이들 곁으로

이러한 마음은 2005년 러브 투 헬프 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단은 르완다 5개 지역에서 미혼모와 심 대 산모, 과부와 고아, 위기 가정, HIV/AIDS 감염 여성, 학업 중단과 빈곤-영양실조,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가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여성은 빈곤과 가절, 절망으로 다른 선택지를 거의 잃은 채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마망 드보라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곁에 머물며 잃어버린 존엄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건넸다.

사역 초기에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이 낙인과 소문이 두려워 약을 받으려 가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마망 드보라는 자신도 HIV 감염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들을 대신해 약을 받아오기 시작했다. 다른 여성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수치심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아낀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것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가 상처 입은 여성들에게 건넨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라와 지역사회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술 교육 지원으로 존엄 회복

러브 투 헬프는 심리 상담과 학교 지원, 자조 모임, 기술 훈련,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 사업인 ‘베르왈러브(Berwalove)’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재봉 기술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성경 속 다비다의 정신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역이다.

재단은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아이



2005년 설립돼 현재 르완다 5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브 투 헬프(Love to Help)’ 사역팀. ©Maman Deborah (Supplied)

들이 교육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30개가 넘는 자조·지족 모임을 세웠다. 2025~2026년에는 168가구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 612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고 2,389명이 간접적인 혜택을 얻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변화다.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던 여성들은 존엄을 되찾아 삶을 다시 세우고 있으며, HIV 감염 위험과 방치에 놓였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이 피어날 때까지

러브 투 헬프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상담과 훈련을 이어가며 여성과 아이들이 존엄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돕고 있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후원과 자금 조달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의 신뢰를 쌓아온 사역을 지원하는 일은 한 단계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수치심과 빈곤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더 많은 생명을 붙드는 울타리가 된다. 무다헤라는 지역 사역이 무거워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망 드보라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슬픔을 연민으로, 연민을 행동으로 바꿨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때로 희망이 다시 피어날 때까지 고통받는 이의 곁에 오래 머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장 해인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살든지 죽든지 결단하라(계 3:1-6)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사데는 BC 6세기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BC 133년부터 로마의 영지가 되었다. 17년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컸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다.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이 발달된 부자 도시였다. 그러나 사데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였다.

1. 하나님의 경고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1-2).

사데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① **살았으나 죽은 자** : 영적 죽음 - “내가 네 행

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1). 교인들의 대다수가 도시의 부를 사치스럽게 누리며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다.

* 죽음의 양태 : 육체의 죽음(사망), 죄에 의한 죽음(죄 사함 받지 못한 죽음), 영적으로 죽음(죄 후의 심판).

② **온전하지 않은 행위** : 영적 타락 -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계 3:2).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영적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그러나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① **회개하라** : 영적 각성 -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계 3:3 a).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잊어 버렸던 과거의 습관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끊임없이 내려오는 잘못된 악의 씨위신, 타락)가 있는 것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셨다.

② **심판할 것이다** : 심판의 하나님 -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계 3:1 a).

* ‘일곱 영, 일곱 별’에서 일곱의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b).

3. 영적 순결을 지키는 자라 되라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 영적 순결 - 죄악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를 말한다. 부패와 음란의 도시에 살면서도 합당하게 산 자를 칭찬하셨다.

② **흰 옷을 입은 자** : 영적 승리 - 더럽힘을 없는 순결, 로마에서는 개신 축하식 때에 전 시민이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승리자의 영광을 의미한다

③ **합당한 자** : 영적 믿음 - 부패와 음란의 도시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 13:21-22).

4.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성도로 자신을 드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① **이기는 자** : 흰 옷을 입은 자 - 영적으로 순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② **생명책** : 생명책에 기록된 자 -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계 20:12)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무엇이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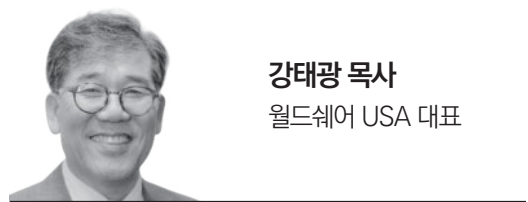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③ **시인하리라** :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자 -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 1:12).

5. 결론. 모든 교회는 순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1-6). 아멘.

살기 위해 메기가 필요하다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 USA 대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식을 들으며 눈과 귀를 의심한다. 뉴스에 발표되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그간에 보여준 오만과 특권 의식을 생각하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과도하고 부적절한 오만이다. 무능과 부패로 썩어 회생 불능 상태인 듯하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가?

그런데 더욱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뻔뻔한 선거관리위원회 태도다. 연일 드러나는 악성 소식에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퇴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국민, 모든 언론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도 그냥 버티고 있는 듯하다.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부한 격언을 생각했다. 요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뉴스와 정치권을 달

군다. 많은 사람이 그의 발언을 문제 삼지만, 그의 말을 뜯어 보면 틀린 말이 없다. 특히,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의 지적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에 올바른 지적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승패는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목소리가 정권마다 필요하다고 믿는다.

역사의 도전과 응전을 주창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청어 이야기를 자주 인용했었다. 토인비가 전하는 청어 이야기는 이렇다.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청어는 북해나 베링해협에서 잡히는데, 청어는 런던에 오는 도중에 죽었다.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실어 오는 것이 큰 숙제였다.

어부 대부분은 팔팔한 청어 대신 냉동 청어를 가져왔다.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싼 값에 팔렸다. 그런데 한 어부는 늘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왔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다.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와 파는 그 어부는 다른 어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를 부럽게 지켜보던 다른 어부들은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동료 어부들의 끈질긴 설득을 받고 “수조에 메기를 몇 마리 잡아넣으세요.”라고 했다. 이 말에 어부들은 “아니

메기는 청어의 천적인데 메기를 청어 수조에 넣어 두라고요?”라며 웅성거렸다. 그를 따라 다른 어부들도 갓 잡은 청어 통에 메기를 넣고, 런던에서 확인하며 깜짝 놀랐다. 청어들이 팔팔하게 살아 있었다. 메기는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지만, 수조의 청어들은 메기를 피해 달리며 긴장 가운데 움직였고 청어는 기나긴 여행에도 살아 있었다.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했다.

고대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신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장군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라고 속삭이게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전쟁의 승리로 환호 속에 개선하는 장군에게 “오늘은 영웅이지만, 너도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라”라는 메시지다. 지성의 제국 로마는 제도적으로 메기를 키우며 생명력을 유지하려 했다. 지혜로운 실력자는 부패와 나태로 죽지 않으려고 메기를 두었다. 메기를 죽인 권자(權座)의 주인은 비참한 말로를 본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메기를 죽이면 청어가 죽듯이 우리도 죽는다. 정부나 여당에 메기가 필요하다. 야당에도 메기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 수조에 메기를 풀어 놓는 겸손과 지혜를 배우고 싶다.

사랑은 관심



성준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한국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잊아가는 불이 타는 것을 그저 멀리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한 다리가 멀면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집, 나와 관련된 비자니 스면 열 일을 뒤로하고 우선 뛰어들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심에서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성도들은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16:8) 고백합니다.

이 시는 다윗 인생의 위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고 기도하면서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평생의 기도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품에 넣고 다닌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사진을 지갑, 핸드폰 프로필에 넣고 다니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셨습니 다. 손바닥에 새겼습니 다.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천사들보다 연약한 인생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시 50:5. 예배와 사람들을 관심할 때 사랑의 증거입니다. 관심은 몸을 움직이고, 그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내 관심은?



21세기의 질병, 외로움과 고독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

21세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초연결 사회의 시대이다. 과학과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단순히 암이나 치매, 당뇨만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로움(loneliness)과 고독(isolation)을 21세기의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말한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의 병보다 먼저 마음이 병드는 시대인 것이다.

영국은 이미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중요한 공공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 준다. 행정학에서도 조직의 성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기술이 있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관계가 끊기면

삶의 의미도 약해진다.

성경 역시 이를 오래전부터 말씀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세기 2:18)라는 말씀은 인간의 본질이 관계 속에 있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교회도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식탁을 나누셨으며,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은 치료 이전에 '함께 있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여러 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말했다. 이 말은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도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한마디는 현대인의 고독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랑은 메달렸고, 정보는 넘쳐지만 진정한 대화는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는 경쟁에는 익숙하지만 공감에는 서툴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함께 걸어갈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의 독거생활, 청년들의 사회적 단절,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는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든다.

그러나 외로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람이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식사, 경청하는 마음이 사람을 다시 살린다. 교회와 가정, 지역사회가 이러

한 관계의 울타리가 될 때 외로운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시편 68:6)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공지능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 기술은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은 더욱 소중해진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사랑을 통해 가장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했다. 시대와 학문은 달라도 결론은 같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이며, 더 많은 팔로워가 아니라 더 깊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다. 외로움의 시대를 이기는 힘은 사랑이며, 고독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처방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21세기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이다. 서로의 손을 잡아 주는 작은 사랑이 외로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고독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고, 로봇은 일을 도울 수 있지만 상처 입은 마

음을 위로할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을 살리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사람을 이어 주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공동체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으며, 혼자 높아지는 사회보다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사회이다. 행정학은 신뢰를 사회자본이라 말하고,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 가르친다. 학문과 신앙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에 이른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이며,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 주는 여유이다.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전화 한 통, 함께 식사하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러한 사랑의 울타리가 될 때 외로움은 희망으로, 고독은 행복으로 바뀔 것이다. 21세기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 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출 때 자신의 길도 함께 밝아진다."(알베르트 슈바이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나와."(전도서 4:9-10)

조선인과 오랑캐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장 28절)

필자가 어렸을 때, 6.25사변이 났는데, 그 때,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아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랑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렀지요. 우리 민족은 중국의 한족(漢族)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천시하면서, 오랑캐로 여겼습니다. 오랑캐라는 말은 변방의 소수 민족들을 비하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진 말입니다. 본디 이 말은 13세기 몽골 유목민들이 삼림지대에 살던 몽족, 통구스계 수렵 민족을 우랑카이(Uriankhai)라고 부르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중화(中華) 질서에 따라 문화 수준이 낮고, 거칠며, 예의를 모르는 야만인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한자와 한문 문화의 발상지인 중국의 한족(漢族)은 우러러 보며, 사대(事大)하였지만, 기타 종족들은 오랑캐라며 멸시하였습니다.

만주의 여진족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후금(후에 청나라)이라 칭하면서, 조선에 명나라 섬기는 것을 중지하고, 자기들을 행남 나라로 받들라고 하자, 조선 조정은 우리가 어찌 한족의 나라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들을 섬기느냐며 비웃었습니다.

분노한 후금의 수장 누르하치는 조선을 치기 위해, 1627년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여 한양 가까이 다가오자, 당시 왕이었던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로 급히 피난을 갔습니다. 긴 전쟁을 원치 않았던 후금과 조선은 '형제'의 관계를 맺은 후, 후금은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636년, 후금은 국호(國號)를 청(淸)이라 개명하고, 우두머리 홍타이지가 황제가 되어, 조선에 군신(君臣:임금과 신하)관계를 명했습니다. 조선이 오랑캐를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며 거절하자, 분노한 청 태종(홍타이지)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한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상황이 급해지자, 인조와 조정은 미처 강화도로 피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나, 강화도가 청군에 점령되

고, 세자 소현과 차자 봉림대군, 여러 비빈(妃嬪)들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엄동설한의 혹독한 추위에 남한산성에 양식이 고갈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 태종에게 항복하였습니다.

항복한 인조는 여진족들의 항복 의식에 따라, 오늘의 서울 잠실 석천호수 근처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즉 큰 절을 올리고 절을 올린 후, 이마를 땅에 세 번 짚는, 그래서 세 번 큰 절을 하고 아홉 번 이마를 땅에 짚는 수치를 연출하였습니다. 여진족을 오랑캐라며 멸시하던 양반의 나라 조선의 국왕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세 번 큰 절하고 아홉 번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에 짚었으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었네요. 양반과 오랑캐는 힘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지, 힘이 없을 때 할 소리는 아닙니까. 힘 앞에서는 양반도 오랑캐도 없고, 오직 힘이 제일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족(漢族)을 세상 최고의 민족으로 사대하던 조선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19세기 말, 서양 세력이 밀려들어서야 당시로서는 모든 면에서 따라 잡을 수도 없이 앞서간 서양인들을 양(攘夷) 즉 서양의 오랑캐라 부르면서 배척하였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잡은 대원군은 1871년(고종 8년)에 일어난 신미양요(辛未洋擾) 때, 미국 군함 다섯 척이 강화도 일대에 나타나 조선군과 전투를 벌인 후, 미 군함이 물러가자, 전국 각지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는 척화비(斥和碑)를 전국 각지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서양 세력과 일제 앞을 헤치는 민족은 아쩔 수 없이 개항(開港)을 했고, 결국 왜놈 또는 왜오랑캐라 알잡아 부르던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영국은 1863년, 런던에 세계 최초로 지하철도를 개통시켰습니다. 한국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74년에서야 개통되었지요. 누가 오랑캐인지....

이제 왕족도, 귀족도, 양반도, 평민도, 하인도, 백정도 없는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존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오랑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살롱.

조상들의 자랑스런 발명품들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

하버드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사에 대한 연구가 깊은 분입니다.

피터슨 교수가 한국이 자랑할 3가지 발명품과 자랑스런 전통을 말해줍니다.

첫째가 금속 활자입니다. 사람들은 금속 활자 발명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로 성경을 출간한 때가 14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7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불경을 간행하였습니다. 그 인쇄본이 지금 파리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글의 발명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훈민정음 곧 한글을 발명한 해가 1445년입니다. 세계에는 언어도 많고 문자도 많습니지만 그 언어의 발명자와 발명 년도가 알려진 문자는 유일하게 한글입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가 AI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 이기에 한국의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셋째는 교육열입니다.

한국이 불과 70 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민족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열 탓입니다.

이들 3가지 외에도 자랑스런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의 인류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던 2단계 로켓트 신기전(神機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거북선은 세계사에 자랑할 탁월한 발명품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감리회 세계선교, 개인 헌신 넘어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 제안

세계선교사 202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가 선교사 개인과 개별 파송교회의 헌신에 의존해 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교단과 파송교회, 선교사, 현지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세계선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지난 28일 열린 '감리회 세계선교사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정책포럼'에서는 세계선교사들의 사역 환경과 생활 실태를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정과 건강, 심리 상태, 안식년, 은퇴 준비, 사역 이양 등 선교사의 생애 전반에 걸친 현황이 공개됐으며, 이를 토대로 감리회 세계선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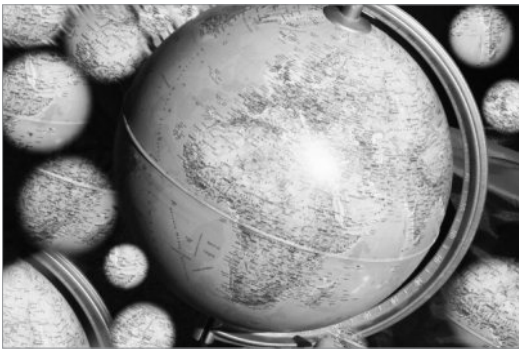
이번 정책포럼은 교단 본부나 일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제안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실제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황병배 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는 "선교의 미래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경험과 요구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과 경제 불안, 종교 규제, 기후위기, 디지털 환경 변화, 선교사 고령화와 신규 선교사 감소 등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계선교사 설문조사, 재정 불안과 구조적 문제 확인

이번 조사는 감리회미래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총 55개 문항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세계선교사 20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남성 153명, 여성 49명이었으며, 교역자 선교사는 164명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사역 경력을 살펴보면 9년 이상 20년 이하의 선교사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1년 이상 장기 사역자도 62명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Pixabay

중장기 사역 경험을 갖고 있어 선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됐다.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사역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53.1%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여건을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6명이 '어려움' 또는 '매우 어려움' 수준을 선택한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선교사는 21명에 불과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13.9%였으며, 보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선교 사일수록 심리적 불안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역시 개인적인 신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2%는 처음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소속돼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담임목사의 교체였다. 이어 파송교회의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임목회자의 인사 이동이나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선교사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교단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선교비 운영 방식에서도 개선 과제가 확인됐다. 사역비와 생활비를 구분해 지원받는 선교사는 전

체의 13.4%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생활비와 사역비를 함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선교사가 생활비를 줄여 사역을 이어가거나 반대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역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생활비와 사역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위기 대응비 등을 구분한 표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안식년과 은퇴 준비, 개인이 아닌 정책 과제로 접근해야

조사 결과는 안식년과 은퇴 준비 역시 선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단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응답자의 약 65%는 안식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은퇴 이후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또한 응답자의 18%는 감리교 교역자 임금과 국민연금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개인연금을 준비한 비율도 약 20%에 그쳤다. 은퇴 후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선교사는 절반을 넘었지만, 실제 주거와 생계 계획까지 준비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는 선교사의 은퇴를 사역 종료 이후의 개인 문제로 보기보다 파송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정책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파송 준비부터 현장 사역, 위기관리, 안식년, 사역 이양, 은퇴와 귀국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교사 생애주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교사 고령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감리회 소속 선교사 1,261명 가운데 50대가 501명, 60대가 303명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선교사는 6명, 30대는 102명에 그쳐 세대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발표자는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향후 10년 안에 감리회 선교사 수가 크게 감소하고 평균 연령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현재의 연령 구조와 신규 선교사 감소 추세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전망으로,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력 중심의 세계선교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의 핵심은 개인 중심 선교에서 협력 중심의 선교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기존처럼 선교사가 개별적으로 사역지를 선택하고 후원을 모아 활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교단과 파송교회, 선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파송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동일 국가나 권역에서 여러 선교 단위가 협력해 인력과 재정,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선교 모델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사역 중복과 후원 경쟁을 줄이고, 특정 선교사가 이동하거나 은퇴하더라도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교사 재교육과 권역별 모임, 위기관리, 의료 및 상담 지원, 재정 보고, 사역 평가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책 방향은 공공성과 투명성, 연대성,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선교사에 대한 통제나 감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선교 현장의 특수성과 보안, 선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단 본부는 모든 사역을 지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선교사와 파송교회, 현지교회를 연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선교사 역시 정책 수립 과정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지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패러다임으로 전환 요구

사역 이양과 현지인 지도자 양성 역시 앞으로의 선교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조사에서는 약 60%의 응답자가 자신의 후임자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울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선교재산 관리와 현지교회 이양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포럼에서는 앞으로의 선교 성과를 단순히 한국

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나 기관의 숫자로 평가하기보다 현지교회의 자립과 현지 지도자의 성장, 선교재산의 투명한 이양 여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방향은 국제 선교계가 강조하는 다중심 선교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교를 수행하는 구조를 넘어 다양한 지역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선교 모델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이주민 선교 역시 세계선교의 새로운 축으로 제안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다문화가정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역자이자 미래 지도자로 세우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역 경험을 가진 선교사와 국내 교회,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할 경우 해외선교와 국내선교를 함께 이루는 새로운 선교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퇴 선교사와 목회자, 전문직 평신도의 경험을 이주민 사역과 선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감리회 선교사 약 1,300명 가운데 20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인 만큼 이를 전체 선교사의 현실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권역, 연령, 성별, 사역 분야 등을 세분화한 후속 조사와 함께 선교사, 현지인 지도자, 파송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포럼에서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원 마련과 제도 정비, 공동재정 운영, 의료·상담 지원, 안식년과 은퇴 지원, 선교재산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감리회 세계선교의 미래는 누가 선교를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책임이 누가 함께 나누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과 개별 교회의 헌신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을 넘어 교단과 파송교회, 선교사, 현지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체계 구축이 앞으로 감리회 세계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장지동 기자

울산대영교회, '2026 대영워터페스티벌' 성료

초등학생 1,764명 참여... 931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성과 거둬

울산대영교회(담임 조운 목사)가 지난 24~25일 개최한 '2026 대영워터페스티벌'이 초등학생 1,764명이 참여하고 이 중 93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를 '다음세대에 마음을 쏟는 해'로 선

포한 대영교회는 학교 앞 전도, 토요학교, 제자훈련, 어와나 사역에 이어 이번 워터페스티벌을 복음 중심의 연합 전도축제로 기획했다.

행사는 복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과 인기 유튜브 '슈벨맨'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함께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스펠 존에서는 복음큐브, 가스펠카드, 복음순, 다리전도법 등의 콘텐츠를 통해 놀이처럼 복음을 접하게

했으며, 푸드존 역시 '복음팔찌'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반박해서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번 행사에는 626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헌신했다. 행사를 총괄한 서반석 목사는 "울산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으로 성도와 교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섬겼다"며 "이번 워터페스티벌이 한국교회 다음세대 부흥의 영적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대영워터페스티벌이 열린던 모습. ©울산대영교회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 반려동물 산책&장례
-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사회복지학,상담학,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65**

「바른예수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 세계의 80억이 넘는 인류를 「인간」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흘러오는 말 가운데, 「인간」이란 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간과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고, 후손들에게 「사람 노릇, 잘 좀 하라고 가르쳤지요. 옛날에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라는 데서는, 초보자에게, 「계명편, 다음 책으로 「동명선술」을 가르쳤는데, 그 책 첫 페이지 첫 문장에, 「세상 만물 중에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과연 현대 인간이 이런 이름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지극히 부족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BC 400년경에, 그리스에 걸인 철학자로 유명한 디오게네스 선생이 있었지요. 그가 하루는 별건 대낮에 등불을 켜 들고는 아테네 시내를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많은 시민들은, 그가 굶주려서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겠지요. 그때 한 사람이, 「선생님, 대낮에 행 등불을 켜고다니는 무엇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걸인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선생에게 과연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닮은 자,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려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욕망이 적은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요컨대,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고, 욕심이 적은 자,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람이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빠른구매

80개 언어 번역

AI VOCAPEN
국내 최초 생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엘선교회, 아이티에 성경 1,930부 후원

대한성서공회 통해 아이티어·프랑스어 성경 전달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7월 29일 용인 반포센터에서 엘선교회(회장 황현숙 장로)의 후원으로 아이티어 성경 830부와 프랑스어 성경 1,100부 등 총 1,930부를 아이티에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개최했다.

엘선교회는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의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연합 선교단체다. 지난해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는 아이티 성경 보급을 지원했다.

이날 기증 예식에서 엘선교회 정책자문위원 정동범 목사는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되었고, 성경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에 박해와 제한으로 점점 좁혀져 가는 선교 지역의 문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성경”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성서공회 마그다 빅터 총무는 “여러분의 후원 덕



아이티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엘선교회 회원들 ©대한성서공회

분에 아이티에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구입할 수 없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삶이 변화될 아이티의 모든 형제자매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대한성서공회 총무 호재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된 신앙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한 권의 성경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 한 가정이 변화되며, 그 가정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까지 변화될 것을 믿는다. 지금은 희망의 신호도 보이지 않는 아이티 사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이티가 극심한 치안 불안과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상당 지역은 무장 갱단의 영향권에 있으며 납치와 살인, 약탈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극심한 빈곤까지 더해져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전달되는 아이티어 성경과 프랑스어 성경은 아이티성서공회를 통해 현지에 보급될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보급과 함께 어린이 대상 성경 중심 사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우리가 놓쳤던 복음서의 진짜 메시지

신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고 착각했던 성경, 복음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탄생에서 곧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건너뛰곤 한다. 복음서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배경으로 밀려나고, 십자가는 그저 내세 구원을 위한 면죄부 정도로 축소된다.

신약학의 가장 톱 라이트는 신간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를 통해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해해 왔던 복음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

한 이야기로 다시 엮어낸다.

저자는 우리가 복음서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사복음서 안에는 네 개의 다른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네 개의 스피커'라고 부른다. 첫째,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 둘째, 이 땅에 마침내 왕이 귀환하셨다는 이야기. 셋째,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넷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제국(카이사르의 나라)과 충돌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동안 특정 스피커의 소리만 너무 크게 틀거나, 어떤 스피커의 전원은 아예 꺼둔 채 복음서를 읽어왔다. 톱 라이트는 이 네 개의 스피커가 조화롭게 울릴 때 비로소 복음서가 본래 들려주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가장 탁월한 점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데 있다. 저자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속죄의 형틀이 아니다. 무력과 억압으로 통치하는 세상 제국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확증된 대관식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 십자가와 부활은 흠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완벽한 서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는 신학 서적이지만 건조한 교리서가 아니다. 1부에서 복음서 읽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2부와 3부를 거쳐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통합해 내고, 4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성경 읽기가 오늘날 우리 신앙과 교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 신학생들에게 이 책은 성경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제임스 카케, 찰스 콜슨, 찰스 스탠리 등 위대한 영적 거장들이 입을 모아 찬사를 보낸 A. W. 토저. 그의 빼 때라는 통찰과 타협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생동감 넘치는 컬러 양장의 '토저 대표작 뉴에디션'으로 다시 돌아왔다.

신간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는 얇은 신앙에 안주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피상적인 겉데기를 벗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즉 '더 깊은 삶(deeper life)'으로 나아가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영적 각성제와 같은 책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의 위험과 희생을 잃어버렸다. 예

배의 자리는 성실하게 지키지만 정작 마음은 헛헛하고, 기도에는 습관이 되었으며, 지식은 쌓여가는데 영적인 삶은 나날이 빈곤해진다. 토저는 이처럼 미지근해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린다.

저자는 세상의 불평을 전혀 겪지 않고 천국마저 누리려는 알팍하고 피상적인 신앙을 매섭게 비판하며, 끊은점에 도달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것을 도전한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토저는 에덴동산의 뱀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속삭이는 '자아(Ego)'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히 채우시려면, 먼저 내

면의 그릇을 비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이 비움의 과정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영광의 한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책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자아의 실체를 낱알이 폭로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 없이는 참된 성령 충만도, 강력한 기도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짚어낸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는 자기 부인, 성령 충만, 기도, 순종 등 신앙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6개의 실천적 에세이를 담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된 토저의 생전 인터뷰는 그가 평생 견지해 온 복음주의 신앙의 정수를 마치 결에서 대화하듯 생생하게 전해준다.

가독성을 높은 현대적 문장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이번 뉴에디션은, 정제된 신앙에서 벗어나 생동감 넘치는 영적 도약을 꿈꾸는 모든 성도에게 시원한 오아시스이자 예리한 수술칼이 되어줄 것이다.

최승연 기자

8월, 작가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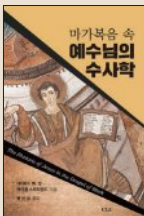


세상의 꿈들이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証明)하도록 압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 주신 이 거룩한 꿈은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確定)되었음을 선언하며 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거룩한 꿈이 우리 삶에서 참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문화와 선교 같은 '하나님의 일'과 직업과 물질 같은 '세상의 일'로 나누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에 주신 소명'이라는 통찰이 이 구분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첫 번째 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꿈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녀 됨'입니다. 허락 '자기 증명의 파산'



모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선언은 충격적일 수 있다. "제물이 헛되다," "분량이 가증하다," "질기를 미워한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 뜻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덜 놀랐을 것이다.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더 무거운 일을 버려둔 채, 제사와 절기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촉구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6-17). 여기서 유다의 회복은 단지 용서(지위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회개(삶의 변화)가 함께 온다.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이 핵심이다. 율법이 반복해서 이웃 사랑으로 명하는 이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이다. 선행은 이사야의 구원 이해에서 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남는다.

토머스 맥콜, 케일럼 프리드먼, 매트 프리드먼 '선행, 개신교와 만나다'



그리스-로마 세계 안에서 엘리트가 아닌 대중에 의해 작성된 문헌들 중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장르는 독서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독서 관습은 문학 작가와 독자가 속한 사회적 세계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스-로마 문학을 보존한 이들은 대부분 귀족 계층이었으며 그들의 관심은 주로 자신들의 엘리트 문학에 집중되었기에, 오늘날 복음서를 비교할 수 있는 사료 다수 계층의 문헌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마가복음은 엘리트 문학처럼 읽혀지지 않는 대중문학에 속할지라도, 대중문학은 또한 그리스-로마 세상 대부분의 문맹적 대중 가운데 그 내러티브가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역량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성은 점진적으로 문학 비평자들 안에서 인식되고 있다. 예수님을 "집주인"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분열된 집의 이슈를 다룬 마가복음의 첫 주요 강화를 연상시킨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분이 미치셨다고 생각하며, 그를 붙잡으려 나왔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을 포함하도록 그분의 가족을 재정의하신다. 이 강화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온전한 권위로 돌아오실 집주인으로서 자신을 제시하신다. 따라서 이 강화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강화 안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동등하다.

데이비드 M. 영, 마이클 스트릭랜드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수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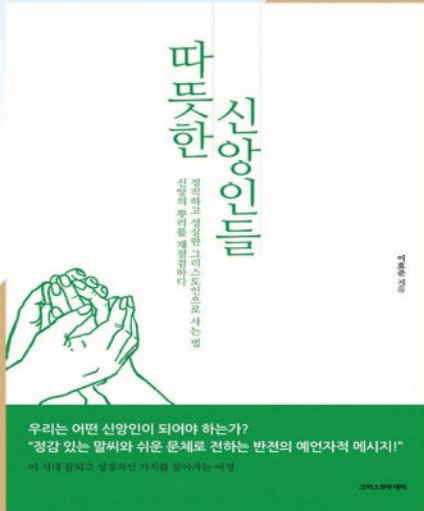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에 울어낸 책입니다. 박효록 목사 (양원내산교회)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129)**

로고스의 어원적 유래
로고스라는 신학적 어원을 사용한 것은 제4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Apostle John, 6-100)이다. 그러나 로고스라는 용어는 당시에 이미 헬라 철학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말씀', '논리', '진리', '율리', '논리적인 말'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이 말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에베소 출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40-480)였다. 에베소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Cleopatra, B.C. 69-30)가 안토니우스와 소피를 즐겼던 사치의 도시이며 바울(Paul, 5-67)이 기원후 53년경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도시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는 것에서 로고스(말씀)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로고스신학을 정립했다. 요한복음의 저작자와 저작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저작 장소를 에베소라고 인정한다. 한편 요한이 전개한 로고스신학은 요한복음의 요한 저작설과 에베소 저작설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활약할 때에 로고스라는 용어가 에베소 출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여 에베소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원래 왕족 출신으로 높은 공직에 있었으나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민주정치가 종종 부정부 상태를 초래하자 실망하여 동생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둔, 사색, 공부로 일생을 마감했다. 그는 성격이 고집스럽고 엄격하여 '어두운 철학자'로 알려졌으며 철학적 지혜로 현실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70-495)를 찾아갔으나 피타고라스가 인간의 감각과 주관적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주장하자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영혼의 변화 속에 숨어있는 역동적 리듬을 파악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믿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벗어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인 로고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내부의 세계로 향하게 되었고 아에 따라 인류는 자연에 대한 신화적 신비주의를 벗어나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적 사고를 갖게 된다는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고스를 사용했다. 그는 로고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다. 아무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가지 못한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이며 어제의 강은 오늘의 강



이 아니라 새로운 강이다.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로고스이다. 로고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신성한 불꽃이 바람과 연료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 감각이나 주관적 판단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감각이나 느낌은 일시적이며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각은 세상을 정지된 것, 고정된 형상으로 파악할 뿐 그 뒤에 존재하는 생성과 소멸의 역동적 리듬을 못 본다. 반면에 로고스는 직감과 직관으로만 파악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직감과 직관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지식적 직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사물 자체에 영원히 존재하는 로고스적인 직감과 직관이다."

제4장 초기 신약교회 시대의 이단주의

자들
이 장에서는 초기 신약교회 시대 당시의 이단주의자들의 주장들과 그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단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결과는 이미 앞 장에서 어느 정도 소개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 전개하게 될 기독교 신학 정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정리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비비 이단자들이 등장하여 비진리적 사상들을 퍼트렸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 내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이단주의 사상들이 침투되었다. 특히 당시의 상황은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또한 진리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각종 사비비 이단주의자들의 비진리를 정확하게 가려내어 그들을 퇴출시켰다. 이러한 사비비 이단자들의 주장과 그들을 가려내어 퇴출시킨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일일이 고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중에 매우 중요하고 심각했던 것들만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영지주의(Gnostic Dualism)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되어 공급되지 않았고 반면에 사도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이 은퇴하거나 또는 그들이 돌보던 지역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약간의 지도적 힘이 생겼을 때에 교회를 크고 강력하게 공격했던 것은 그노시스교의 이원론(Gnostic Dualism)적 철학 사상이었다. 그노시스교 이원론은 우리 용어로 영지주의(靈知主義)로 번역된다.

그노시스교의 역사
그노시스교 또는 그노시스주의(Gnosticism)라는 어원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Gnosis)에서 비롯되었다. 그노시스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다. A.D. 80-150년 사이에 기독교 안에서 자생한 후에 기독교로부터 이탈한 분파라는 주장이 있고 리벤트 지방(Levantine, 동부 지중해 여러 섬과 시리아, 레바논, 이

스라엘 등등의 연안 제국)에 흥성하였던 각종 혼합종교들을 총칭하여 그노시스교라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장 믿을만한 전승에 의하면 "성구"(행 8:9-24)에 등장하는 시몬 마구누스(Simon Magus)가 영지주의의 근원이다. 시몬 마구누스가 영지주의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으며 영지주의자들 중에 어떤 분파가 시몬 마구누스를 구세주로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고 전파하는 구원의 방법론 중에 시몬 마구누스가 직업적으로 행했던 주문과 마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전승들을 종합해 볼 때에 시몬 마구누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단적 행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하여 리벤트 지방에 계속적으로 전수되어 지다가 2세기에 이르러 사토르닐루스(Saturnilus), 바실리데스(Basilides)에 의하여 교리적으로 발전되어지게 되었고 3세기에 이르러 발렌티누스(Valentinus)에 의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리로 확립되어 졌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영지주의가 처음부터 단일 체제적 교파와 교리를 통하여 발전되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수많은 분파로 전래되어 오다가 2-3세기에 이르러서야 오히려 어떤 체계적인 교리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연애와 구혼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 연애와 데이트라는 말은 따로 없지만, 결혼 이전의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트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를 멀리해야 합니다("성구"(벧후 2:20)).
세속적 견해는 원하는 만큼 맘껏 사귀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헌신하기 전에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는지("성구"(요 3:3-8)), 또

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성구"(벧 2:5)).
연애나 데이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성구"(고후 6:14-15)),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도덕과 기준을 타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든 데이트든, 사람이 그 관계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성구"(마 10:37)).
어떤 다른 사람이 내게 '전부'라거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믿는 것은 죄가 되는 우상숭배입니다("성구"(갈 5:20); "성구"(골 3:5)). 또한 우리는 혼전관계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성구"(고전 6:9, 13); "성구"(딤후 2:22)). 성적인 부도덕은 하나님께 반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도 거스르는 죄입니다("성구"(고전 6:18)).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

고("성구"(롬 12:9-10)), 이것은 연애나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든 데이트든,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결혼을 위한 안전한 토대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들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하고 깨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성구"(창 2:24); "성구"(마 19:5)).
갓켄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s 23:1-3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 shepherd: 목자(牧者)
- lack: ~이 부족하다
- lie down: (잠을 자거나 쉬러) 눕다
☞ make + me + lie(동사원형)
down: 나를 눕게 만들다
- pasture: 초원
- beside quiet waters: 조용한 물가로
- refresh: 회복시키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하나님 섬김의 방법과 결실



권혁승 박사
하나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보물)’와 ‘제사장 나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문의 앞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이다.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그렇듯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아니라”(마 16:24)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섬기기 자는 그분이 계신 곳에 늘 함께 있어야 한다.

한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신 6:5),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곧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밀이 밀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

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 소슬바람에 황금물결을 이루는 추수기의 밀밭 모습, 그것이 밀알의 영광이다. 그것은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5)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는 양식이 된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제한된 자신의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할 뿐 아니라 은사의 활성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강지윤 칼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강지윤 박사
인생의 여정을 섰 해 넘게 걸어오며, 인간의 작은 두뇌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아주 작은 별인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목적지 이끄는 삶』의 저자이자 새들백교회회를 섬겼던 릭 워렌 목사의 아들 매튜 워렌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동시에 자살한 사람의 구원과 사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물일곱 살이었던 매튜 워렌은 오랜 시간 심각한 우울증과 싸워 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의 아

들이 극심한 우울증 끝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후 릭 워렌 목사는 밀려오는 비난과 악성 메일, 온라인 댓글로 인해 깊은 어둠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비통해하는 것은 어렵다. 공인으로서 슬퍼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기뻐하며 축하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매튜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부드러운여 연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편함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깊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느라 늘 지쳐 살아갑니다. 또한 뛰어난 재능과 예술적인 감성, 섬세한 마음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우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

습니다.
저 역시 수백 번이나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중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고통과 절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 살아남았지만, 매튜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증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 유혹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것입니다.
매튜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끝내 치유되지 못했을까. 왜 더 깊은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울증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안정 속에서 자란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타고난 예민함과 섬세함 때문에 작은 상처들이 오랜 시간 쌓여 깊은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돌려서도 안 됩니

다.
심한 우울증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나 반복되는 좌절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려는 아이도 있고, 한마디 꾸지람이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 공감하고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매튜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홀통한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보다 종교적인 잣대로 정죄하는 말들이 유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인간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을 분명히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열강도 역시 마지막 순간 회개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역시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개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영원한 구원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정죄를 버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의 예화

보이지 않는 힘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선택의 자유』에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이러한 힘을 갖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회는 결국 경쟁력을 잃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한스 싱어(Hans Singer) 박사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찾는다.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가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진정한 힘은 기계나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 043-900-0377
쇼핑몰 주소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신앙과 학업 함께 세우는 자녀교육… “부모의 삶이 세계관 형성”

이현수 박사, 대한기독교교육협회
7월 세미나서 다음세대 교육 방향 제시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30일 저녁 온라인 줌(Zoom)으로 '7월 월례 줌 세미나'를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녀 교육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녀의 신앙과 학업을 서로 경쟁하는 가치로 구분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삶의 여러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자녀교육 방향이 제시됐다.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녀 교육 처방전을 주제로 강의한 이현수 NOVA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신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로나 입시 문제에 직면하면 세상의 성공 기준을 우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독교교육학 박사인 이 소장은 신앙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편, 학업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영역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신앙과 학업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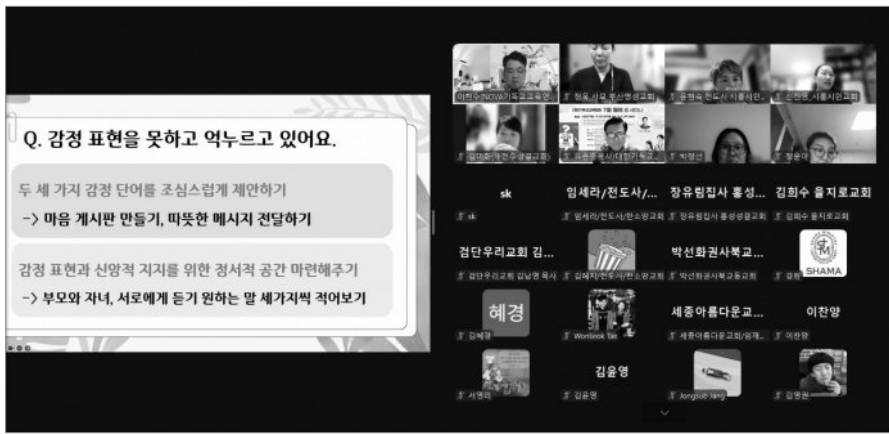
◆입시SNS가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 돼
이 소장은 다음세대를 둘러싼 대표적인 관점으로 입시 세계관과 '열집' 세계관, SNS 세계관, 세상 문화 세계관을 제시했다. 학원 강사나 입시 전문가의 공부법이 학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다른 가정의 집과 자동차, 소득 수준이 생활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SNS에서 주목받는 모습과 유행하는 경향이 삶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세상에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별다른 분별 없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현상도 다음세대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자기 자신을 사과의 중심에 놓는 개인주의와 목표 달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성공주의,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맘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정과 교회, 국가 등의 권위가 약화되는 탈권위주의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 역시 자녀들이 접하는 주요 가치관으로 제시했다.

이러 리처드 니버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난 유형을 토대로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도 설명했다. 문화와 대립하거나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 그리스도를 문화 위에 두는 관점, 신앙과 문화의 긴장 관계를 인정하는 관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관점 등을 소개하며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가 먼저 세상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이 소장은 자녀가 접하는 세계관을 분별하려면 부모와 교사가 먼저 세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 문화가 제시하는 내용을 인식한 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더욱 건전한 접근이 무엇인지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7월 월례 줌 세미나'를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녀 교육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온라인 줌(Zoom) 캡처

자녀와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별한 내용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제자훈련,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특정 문화를 금지하거나 거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녀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오늘날의 자녀들이 인생과 윤리, 진로, 신앙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마주하지만 부모와 교사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려면 먼저 부모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관과 감성, 기준 가치의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정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판단 기준은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틀이며,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질문

에 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렌즈로 삶을 해석하는 안목

이 소장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겠다는 결단으로 설명했다. 성경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했다.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을 분별하는 안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기준은 세상과 타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선천적인 성향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교회 등 자신이 속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했다.

특히 교육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부모나 교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일상에서 보이는 행동과 언어, 분위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르치지 않은 내용까지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교육과정을 형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했다. 성경과 교리, 공과 교재처럼 계획된 교육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태도, 교육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내용도 자녀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 같은 점에서 기독교교육을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으로 규정했다. 부모와 교사의 신앙이 삶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는 만큼 신앙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녀의 감정 관찰하고 작은 성공 경험 쌓아야

이 소장은 신앙과 학업을 함께 세우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자녀의 삶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삶의 여러 부분을 각각 분리하기보다 작은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방향 안에서 연결하고, 자녀의 인생 전반을 바라보며 시기별로 필요한 과제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녀의 감정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초점을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의 기질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도전을 제시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사용을 중단시키기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자녀가 시청하는 콘텐츠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여러 감정 단어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함께 찾고, 과제를 포스트잇이나 점검표로 나눠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교회 안에서 학업을 함께 나누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 짧은 기도문을 읽는 방법도 제안했다. 돈과 물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도록 부모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 관리에서는 고정 일정을 먼저 기록하고 계획 도구를 활용하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다른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새로운 음식을 조금씩 경험하는 '한 입 규칙'을 적용하고 작은 성공을 격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칠 때는 경쟁보다 협력에 시선을 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부모와 교사의 세계관이 일상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 가치관과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일화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태백 교계, ‘2026 태백성시화 여름축제’ 개최

전도세미나, 성시포럼, 콘서트 연합예배, 역사문화 탐방 등 진행

태백기독교연합회(회장 정중욱 목사)와 태백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오대석 목사)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백 일원에서 '제8회 2026 태백성시화 여름축제'를 개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태백시, 태백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들도 참석했으며, 전도세미나와 성시포럼, 시민 콘서트, 영화 상영, 역사문화 탐방, 명사특강, 교회 연합부흥성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했다.

축제 첫날 황지교회에서는 '성시 전도 세미나'가 열려 백종석 목사(사신아름교회), 박성일 목사(목포하나교회),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연합전도 사례와 소그룹 전도, 경청전도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당골광장에서는 영화 '신의 악단'이 상영됐다.

둘째 날에는 철암탄광역사촌과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탐방에 이어 '태알태기 성시포럼'이 열렸다. 정중욱 목사는 태백 기

독교의 역사와 현황을, 최준만 원로목사(태백연동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발표했으며, 이은숙 관장(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황지교회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사역을 소개했다. 이날 저녁에는 황지연못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도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저녁에는 황지교회에서 태백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이 참여한 교회연합부흥성회가 열렸다.

부흥성회에서는 오병열 목사(안양성신교회)가 '말이 아니라 시작이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김철영 목사는 성시화 비전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 목포, 정읍, 이천, 안동, 평택, 대구 등 전국의 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백성시화운동을 격려하고 교회 연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진영 기자



제8회 2026 태백성시화 여름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AI 시대 교실 해법은... “성경적 관점으로 듣고 함께 답 찾아야”

제9회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 기독교 대안학교 수업 사례부터
논제 설계·심판 평가까지 현장 적용 방안 공유

AI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풀어 가도록 돕는 디베이트 교육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디베이트분과가 주최하고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가 주관한 ‘2026 제9회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가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에서 ‘디베이트로 세우는 교실’을 주제로 열렸다. 전국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소통하는 수업문화’를 부제로 내걸었다.

세미나는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예배팀의 찬양과 기도회로 시작했다. 이어 이미향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의 시작 인사와 정진우 디베이트분과위원장의 환영 인사, 이학재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교장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정은 소명학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디베이트 수업 사례를 발표했으며, 정승민 소명학교 교사는 교과와 학년 수준에 맞는 디베이트 논제와 형식을 설계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는 심판의 역할과 채점 기준을 다뤘고, 한동운 꿈의학교 교사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성경적 디베이트의 가치와 교실 적용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디베이트, 승패보다 서로의 다름 존중하는 과정”**

이미향 이사장은 초대의를 통해 디베이트가 논리와 사실만으로 상대를 이기는 과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장 안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기고, 이를 일관성과 책임감, 자율성과 성숙함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베이트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모아 공동체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베이트분과는 학생들이 어른과 동일한 물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교사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타하기에 앞서 행동의 이유와 학생이 바라보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와 어른이 학교와 수업을 자신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육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도 서로 다른 수준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돕기 위해 교사들이 공동의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소명학교 사례로 살펴본 성경적 디베이트 수업**

이정은 교사는 소명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사회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커지는 현실

을 언급하며, 디베이트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다른 입장을 살펴보는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베이트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공정하게 토론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학생들이 혼자만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제한된 발언 시간을 지키고 존중과 예의를 갖춰 의사를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디베이트 수업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할 때는 논리적 말하기에 앞서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논제와 관련해 무엇이 성경적 관점에서 더 나은 방안인지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CTT(Christian Thinking Tool)’를 소개했다. CTT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한 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 방향을 찾으려 하는 사고 도구다.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실천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하도록 구성했다.

이 교사는 디베이트 주제를 창조와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 주제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논제를 학생의 실제 삶과 연결하고, 디베이트가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활동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검색부터 입안·반박문까지 단계별 지도**

소명학교의 디베이트 수업은 오리엔테이션과 채점 기준 안내, 기독교적 사고 훈련, 주제 선정, 입안문과 반박문 작성, 실제 경기와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두 차례 디베이트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 전후에 워크북 검사와 모둠별 경기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검색과 독해, 핵심 내용 정리,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자료와 언론기사, 통계, 법률자료 등을 검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자료의 제목과 핵심 내용, 출처를 기록하는 자료수집 카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예상되는 주장과 질문, 답변을 정리하는 리서치 노트를 작성했다. 상대 측 주장의 취약한 부분과 근거의 정확성, 논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반박문에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경기에 앞서 이전 디베이트 영상을 시청하고 필요한 역할과 절차를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입안과 교차 질의, 반박, 마지막 정리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한 뒤 퍼블릭 포



‘2026 제9회 디베이트 교사 세미나’가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에서 ‘디베이트로 세우는 교실’을 주제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럼 디베이트를 변형한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경기 이후에는 교사의 평가뿐 아니라 동료평가와 학생 피드백도 실시했다. 동료평가에서는 팀원들의 준비 과정과 책임감, 토론 태도 등을 살폈으며, 학생 피드백을 통해 수업 전후의 생각과 태도 변화, 만족도, 개선할 점을 확인했다. 학교생활 기록에는 학생이 자료를 조사하고 주장을 구성한 과정과 경청 태도, 리더십,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반영했다.

이 교사는 디베이트를 역사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 제도, 문화 등을 분류하고 논쟁이 가능한 개념을 찾아 논제를 만든 뒤, 학생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해 조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료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과 갑신정변, 산업혁명의 영향을 주제로 한 수업 설계 사례가 제시됐다.

◆**사실·가치·정책 논제 구분해 교실에 맞게 설계**

정승민 교사는 ‘내 수업에 맞는 디베이트 주제·형식 설계하기’를 통해 디베이트 논제를 사실논제와 가치논제, 정책논제로 구분했다. 사실논제는 특정 명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며, 가치논제는 어떤 대상이나 판단이 정당한지를 묻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정책논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다루는 주제로, 학생들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논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양측 입장을 검토하며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제를 선정할 때는 찬반이 명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평서형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논점만 담고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정치나 종교, 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는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사는 논제를 정한 뒤 핵심 개념의 정의와 관련 성경 구절, 논제가 등장한 사회적 배경,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논제를 예로 들어 환경오염과 자원 절약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과 대체품의 환경 문제까지 양측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념지도도를 만드는 실습도 제시됐다. 학생들이 AI와 관련해 떠오르는 이미지와 정의, 질문, 연관 개념, 구체적인 사례, 가치 등을 정리하면서 논제에 대한 생각을 넓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과 선거연령, 난민 입국 규제, 징병제, 촉법소년 연령, AI 판사, 통일, 일회용품 규제 등 여러 정책논제 후보도 제시됐다. 최종 논제는 교사들의 제안과 논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정 교사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디베이트가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관철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와 너를 넘어 공동체의 해답을 찾아가며, 학생들이 문제를 직면하고 대안을 제시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은 형식·전략·태도 함께 살펴야**

정진우 교사는 ‘심판 역할 및 채점 기준 실습’에서 교사가 디베이트 심판을 맡기 위해서는 경기 형식과 진행 방법, 채점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다룬 경기 방식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학생 수준에 맞게 변형한 형태였다. 양측

이 각각 3분간 입안한 뒤 전체 교차 질의를 진행하고, 각 팀이 3분간 반박했다. 이어 다시 전체 교차 질의를 거쳐 양측이 2분씩 마지막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각 팀에는 경기 중 사용할 수 있는 2분의 작전시간도 주어졌다.

심판은 경기 전 동전 던지기를 통해 먼저 발언할 팀과 찬반 입장을 결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언 순서와 제한 시간을 관리하도록 했다. 발언자가 질문을 회피하거나 상대의 발언을 끊는 경우, 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형식 준수 여부를 채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채점은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디베이트를 통해 갖춰야 할 태도와 경기 형식에 대한 이해, 논제에 맞는 근본적인 주장과 전략, 주장을 전달하는 말하기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실수만으로 팀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경기에서 실제로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경기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을 판정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교사는 두 팀의 점수가 비슷하더라도 반드시 승패를 결정하되, 점수는 0.5점이 아닌 1점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할 때는 승패 자체를 강조하거나 응원하지 말고 양 팀의 수고를 격려해야 하며, 판정이 어렵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분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참가 교사들은 경기 영상을 보며 직접 채점표와 판정 해설지를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서로 비교했다. 정 교사는 좋은 심판의 조건은 점수 자체보다 자신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성경적 디베이트로 생각하고 경청하는 교실 모색**

마지막 토크 콘서트는 ‘성경적 디베이트의 가치와 교실 적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자료는 성경적 디베이트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디베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다시 살펴며, 공동체의 더 나은 선택을 찾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교사들이 디베이트 수업을 직접 탐구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학교의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사 간 교육 네트워크를 넓히며, 세미나 이후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디베이트를 경쟁과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의 답을 찾아가는 수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다가오는 새로운 찬양의 세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긴 인생 여정에 예수전도단을 통해 그리고 22년 동안 미국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 누렸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 쉼이나 교회음악연구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은 이런 것이다.

1970년경 한국교회에 밀려 온 경배와 찬양의 새로운 물결은 경직된 예배에 새로운 활력소로 다가왔다. 물론 축복과 부작용이 함께 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경배와 찬양의 물결은 기성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계시의 복을 한국 교회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였다.

당시의 일반적인 예배 방식(전통적인 예배)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참으로 귀한 많은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찬양들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축복이 되고



조성환 목사

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교회음악을 가르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찬양 사역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 새로운 물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더 이상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닌, 삶으로 찬양하는 세대의 물결이다.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조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곤두박질친다는 소리만 들린다. 이는 더 이상 음악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벌써 일어나고 있다.

찬양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혹은 그들이 작사한 가사 대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곡가들을 교회역사를 통해 함께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

바로 고형원 선교사 같은 분이 그런 대표적인 사역자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인가 고형원 선교사가 직접 보내주었던 그의 음반을 주중에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들던 중에 나는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노래가 담긴 CD였다. 가냘픈 체구와 항상 건강의 어려움으로 바짝 말라 있던 형원 선교사,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삶을 던지던 그 형제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들에서 이제是我们가 높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즉 행함과 책임을 강조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의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노래와 함께 행함으로 찬양하는 세대 말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음악적 혹은 특정 예배 스타일에 연연하지 않는 세대이다. 오히려 어떤 스타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내가 내려놓음으로 다른 형제를 얻을 수 있다면 가까이 나의 선

호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자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도 받으시고 인도 사람의 예배와 찬양도 아무런 문제없이 받으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새로운 찬양의 세대는 또한 단지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었어도 속사탕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세대이다. 입술로 드리는 찬양 안에 그들의 영적인 몸부림을 담은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또 이런 세대를 꿈꾼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복, 즉 아직까지 받지 못한 복에 연연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오히려 나눌 것을 찾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는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세대이기에 바로 새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양

의 물결이다.

셋째, 방어적인 신앙에서 공격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신앙을 방어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일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결을 전심으로 쫓고, 화평을 쫓으며, 관용의 아이디어를 쫓으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적극적으로 쫓는 그런 세대의 물결이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부 일초가 아까워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세대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7-18

이런 물결이 고형원 선교사의 사역이나 저의 사역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으며, 도전하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함께 싸우는 그러한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물결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니라” 시 110:3

◆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모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회중의 키는 예배인도자보다 낮다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간혹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키(Key=코드)이다.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간혹 원곡의 키를 그대로 살려서 부를 때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는 장면을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회중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보통 회중들은 예배팀이 묵 놓아 부르는 곡을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예배인도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은 곡의 키를 낮추는 것이다.

만약 인도자인 여러분이 큰마음 먹고 원곡의 키를 낮출 때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곡의 키를 낮출 때에는 회중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음절이 가장



고용일 목사

높은 음절이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키를 낮추는 작업은 꼭마다 다르며, 예배인도자는 예배 때 부를 곡의 멜로디 라인에 따라서 키를 두 키를 낮추어야 할 수도 있고, 한 키나 혹은 키를 반(1/2) 낮추어 불러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전체적으로 낮은 멜로디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키를 올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나는 지인과 함께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Center)에서 열리는 싱얼롱(Sing-along)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수천 명의 회중들과 함께 약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웅장한 클래식 공연은 그 누구도 낙오자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이사가가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그토록 바랐던 이스라엘 열조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되도록 모두가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도자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한다면, 예배인도자는 회중들 중에 그 누구도 예배를 그쳐 '보는 사람(Watch Man)'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Worship Man)'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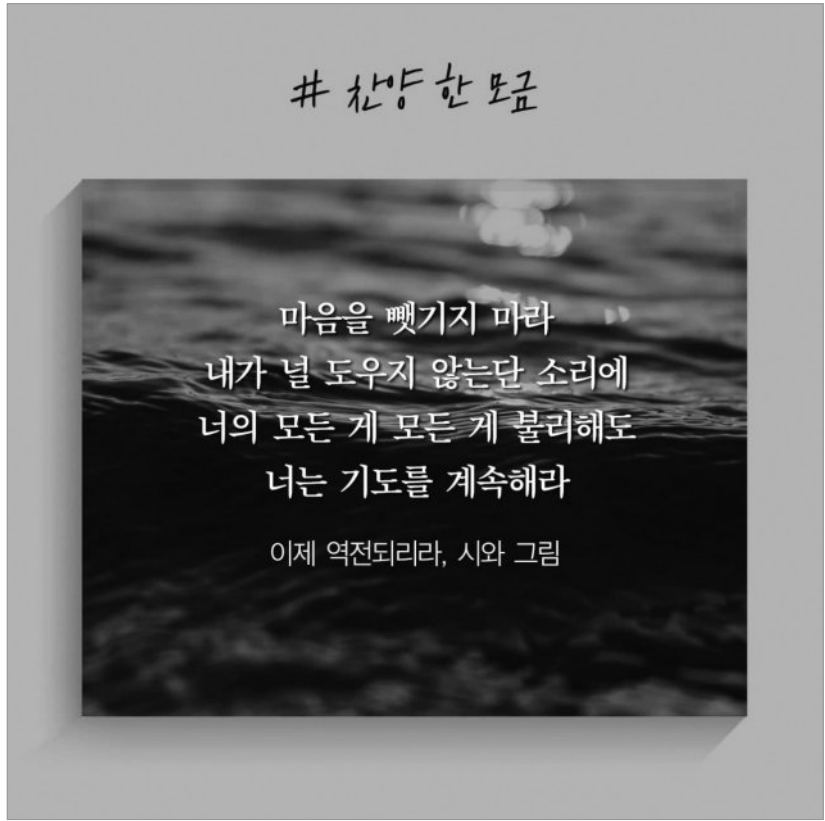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인도자는 예배를 위해 준비한 곡들을 모든 회중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에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할 때 꼭 회중들의 키에 맞추어 예배를 기획해 보는 것도 다른 많은 행사보다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뮤지션들의 기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낮은 키로 만들어진 악보를 웹사이트를 뒤져 찾아서 최소 콘서트 안에 한 곡만이라도 적용해보면 왜 그런 수고가 아깝지 않은지 예배 후 성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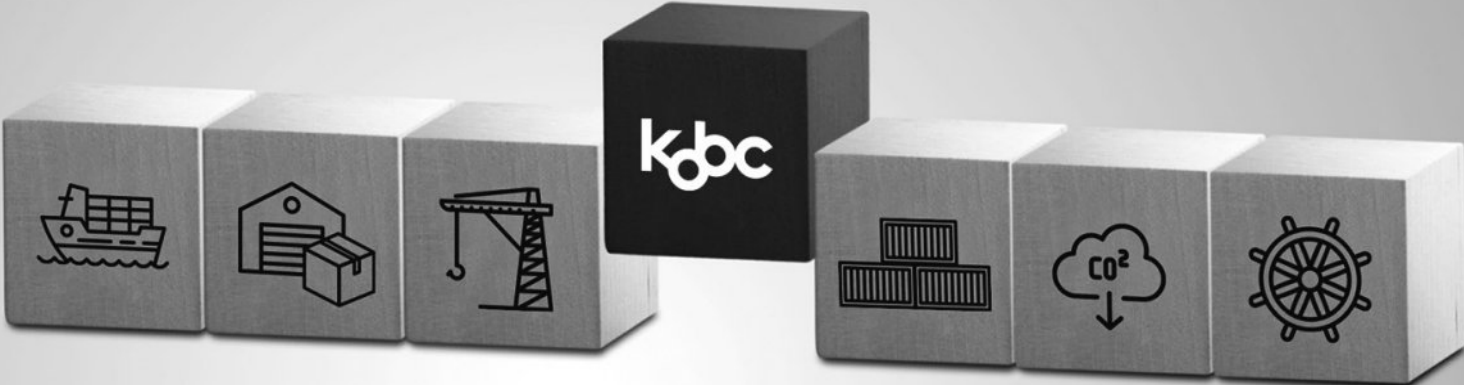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닌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를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스라엘 유물관리청, AI 활용해 사해문서 제작지·기원 규명 나서

5년간 사해문서 250여 점 과학적 분석

이스라엘관광청은 이스라엘 유물관리청(Israel Antiquities Authority, IAA)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해문서의 제작지와 기원을 규명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네덜란드 호르닝안대학교(University of Groningen)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물관리청과 유럽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5개년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최고 권위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어드밴스드 그랜트(Advanced Grant)’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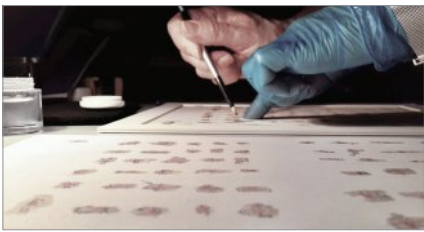
사해문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 등을 포함한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문서의 제작지와 필사 공동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학계의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



2,000년 된 시편 두루마리 조각. ©이스라엘관광청/율리 슈바르츠, 이스라엘 고대유물청

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를 활용해 이러한 오랜 학문적 난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유물관리청이 소장한 사해문서 약 250여 점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먹 등을 분석하고, 화학 분석 결과와 필체 연구(Paleography), 문헌 제작 방식 연구(Codicology) 등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문서의 제작 환경과 지리적 기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AI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화학 성분과 필체의 패턴을 분석해 문서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필경사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게 된



이스라엘 고대유물청에서 관리보존중인 약 25,000점의 두루마리 조각. ©이스라엘관광청/사이 할레비, IAA

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이스라엘 유물관리청이 보관 중인 2만5천여 점의 사해문서 조각을 제작 시기와 지역, 필사 공동체별로 연결하는 최초의 통합 연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구위원회 연구인 ‘성경을 기록한 손(The Hands That Wrote the Bible)’의 후속 연구이기도 하다. 앞선 연구가 AI를 활용해 사해문서를 기록한 필경사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문서가 어디에서 제작됐으며 지식과 문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승됐는지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정지동 기자

HASHAV, 일곱 번째 싱글 ‘주를 인정하는 것’ 발매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 회복 주제 담아

CCM 프로젝트 프로듀싱팀 HASHAV(하샤브)가 일곱 번째 싱글 ‘주를 인정하는 것(Acknowledging the Lord)’을 발표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HASHAV는 성경 본문에 기반한 신학적 메시지를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풀어내는 프로젝트팀이다. 이번 싱글에는 크리스천 합합 아티스트 ANAZAO(아나자오)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주를 인정하는 것’은 반복되는 무기력과 고독,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실망을 마주하면서도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곡이다.

HASHAV는 이번 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 멈춰 서야 하는 순간, 누구도 완전한 의지처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말씀과 기도를 삶

의 방향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개인의 고백을 공동체를 향한 질문으로 확장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필요와 이익, 욕망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현실을 조명했다고 설명했다. 뒷담화와 파벌, 종교적 권력과 이해관계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다루며, 교회가 말하는 ‘함께와 ‘하나 됨’이 실제 삶에서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상황과 진영 논리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도 다뤘다. 특정 정치 진영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확신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고 다른 판단을 내린 성도를 적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정치적 입장이 복음보다 앞설 때 공동체를 가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교적 권위와 이익을 위해



사람을 구분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한편,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을 섬기겠다는 제자도의 방향도 담아냈다고 밝혔다.

HASHAV는 이번 곡에 에베소서 1장 3절, 요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의 분열, 성전과 제사장,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등 다양한 성경적 서사와 상징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사야 45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팀은 “주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는 뜻이 아니라 죄와 분열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며 “비판과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제자도와 성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 됨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신곡 ‘주를 인정하는 것(Acknowledging the Lord)’은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21일차 깊은 어둠에서 아침의 찬양을 준비하는 믿음 / 윤사무엘 목사 40 하나님의 손길(183회) 은혜를 한껏 즐기라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3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3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116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김재원의 꿈이메한(25회) 예수라는 길위의 의사-이재훈 선교사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진주초대-이경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신 곳 (역대하 13) 30 생명의 말씀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비전설교 새중앙 (황덕영) 50 GOODTV 오늘의 예배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64회) 50 하용조 목사의 믿음(1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God is Love(39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파소드
07:00	00 CTS뉴스W(54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주님의 내마신 손이 되어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삶터 이라신광 (권오국) 50 행복한 삶터 소명중앙 (김대성)	30 휴먼네트(39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1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19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순병목 목사
08:00	20 네 영혼의 찬양 Praise(106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6회) 레위기 22-23장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행복한 삶터 삼천포 삼한 (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3일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65회)	00 하나님의 음성(306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3회) 고린도후서 21장	00 고평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목(29회) 여름수련회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0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496회) 거룩한 이를 때문에, 권복을 목사 1부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2장	00 GOODTV 새나바 마태복음(4회)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 (이재일)	0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126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2회)	10 새롬게하소서(11475회) 김수영 원장	00 성지가 좋다(541회) 천혜의 요새 셀라, 나보나두스 비문을 찾아서 30 성경 속 전쟁사(17회) 직와 전쟁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부산다원교회 이채희 목사	00 사론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향?(42회)	00 파워인터뷰(227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106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85회) 필리핀 민다나오 오성홍 선교사 50 신앙예배이 감람민 목사(대전제일교회)-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00 비전설교 가나안 (장경덕) 30 행복한 삶터 한중사랑 (서영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61회) 50 예수동행왕가(26회)	20 세상을 보는 창(319회) 5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종인들(27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30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12강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411회) 50 성전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뉴스W(54회)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00 사랑의 메시지 백송 (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2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1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사이트(조성익)	20 고평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목(29회) 여름수련회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장 3분 미라클 은혜가 모든 죄를 압도한다 30 신앙예배이 안보배 목사(성산교회)-네 짐이 무겁거든 여호와께 맡기라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06회) 레위기 22-23장	00 행복한 삶터 임마누엘 (전담양) 30 행복한 삶터 송일 (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81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2회)	00 울포원(758회)	30 성지가 좋다(541회) 천혜의 요새 셀라, 나보나두스 비문을 찾아서
14:00	00 [생방송]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39회)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게스트 정홍수 대표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3일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72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114회)	00 꽃보다 미소(8회)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585회) 필리핀 민다나오 오성홍 선교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류용열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314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3일	20 CBS 성서학당 (이삭)(4532회) 성서 속으로 Go Gd 12강	00 선교지에서 온 편지(18회) 필리핀 사 사 선교사 1부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19회) 필리핀 정수경 선교사 1부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사랑의 메시지 독심침례 (이기동)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 (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오한복음 강해(35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46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회) 50 맛나는 교회(9회)	00 내 삶의 행보(219회) 5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17:00	00 더워십 임종구(무문초장교회) -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성지교회 김대근 전도사 50 찬양의 샘(107회) 한성교회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삶터 영광의 (조이엘)	30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4회)	50 영혼의 양식, 신위의마을(김영준)	00 강연소 통(73회) 나는 왜 부모를 달아일까?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하늘숲-김기성,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창세기 12:10-13:2) 30 신교회행진(9회) 양평동교회	10 사랑의 메시지 김제하늘꿈 (강연철) 40 더 깊은 울림 해설제 워십	10 RE바이블(38회) 50 신앙회복 프로젝트 <임아야 산다>(6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보훈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더 초존 시즌5(다빙)(1회) 예루살렘 입성 15세	00 예배실황 순복음서울진주초대 (전태식)	30 마션로그 - 끝나지 않은 선교이야기(2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헌)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비전메시지 세종 샘솟는교회 최병남 목사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위대한 발견을(14회) 로제타 홀 선교사 30 생명의 말씀 백송-이순희, 화개의 증거(마태복음 3:7-12)	00 더 메시지 소전우 10 비전설교 해석 (정영호) 40 조경민 목사의 답답담 50 윤호근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3일 20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1회)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중앙성경(한)지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여러분의 것을 구하고 취하십시오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06회) 레위기 22-23장 50 CTS뉴스 8/3(월)	40 GOODTV NEWS	00 소양교회 주일예배 2026년 08월 03일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은누리교회 SNS행년부-(71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33회) 고린도후서 21장 50 잘 믿고 잘 사는 법(14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93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2장	00 다나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8월 03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21회)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11475회) 김수영 원장	00 예루살렘 데이터인(539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27회) 오택현 교수 다섯 번째 9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찬스 구역(11회)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21회) 김중기 목사, 21회 나는 선한 목자라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이단 사이렌	10 켄슨 프랭클린의 부흥(512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8월 03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10 더 클링(153회) 30 목사님 공공해요(167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819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경 속 인물사
00:00	00 Calling GOD(2540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파송의 노래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8월 03일 20 [말씀] 김우준 목사(지구촌교회)(24회)	10 2025 한소방교회 감사 부흥회(22회) 50 성경공필 이것이 공공하다(28회)	00 새배민 강단 소강석 목사
01:00	00 CTS스페셜 레비스타스 찬양예배 I 40 위대한 발견을(18회) 언더우드 선교사 50 워킹온다비아블-성지탐방(58회) 예루살렘 마하네 예후다 정터 밤 풍경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예찬스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냐까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48회) 4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593회)	00 CBS 아카데미 숲(114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38회)	00 만나 U(20회)
0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3525회) 엄마민성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마의 길/아유남 교수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뽕살롱교회)(434회)	30 TV강단 시윤(박성준)	00 만나 워십 감병상 목사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서정오 목사, 여호수아 2장 50 힐링스토리(133회) 김덕희 교수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28회) 30 [말씀]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6회)	00 맛나는 교회(9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04: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네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시애틀형제 (권준)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542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560회) 민수기 17장 50 CBS 교회소식(1062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3회) 이창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78회)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